

文대통령 “국제사회도 北에 상응 모습 보여야”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상그릴라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글로벌 기고 전문매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기고 “찬반 부딪히는 과정 모두 평화, 대화와 행동 계속”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사회가 함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이날 밝혔다.

이번 기고는 157개국 508개 언론사를 회원으로 보유한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측이 세계 저명인사들의 2019년 회고 및 2020년 전망을 담은 특집 발간 계획과 함께 남북관계와 한반도 관련 구상·철학 등을 담은 대통령의 기고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진단하며, “평화가 아무리 절실하다고 해도 한국이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는 없다”며 “평화를 함께 만들어갈 상대가 있고 국제질서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의 실무협상과 3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동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만들어진 평화의 불결은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까지 줄기차게 흐를 것”이라며 “남북한은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유치에 협력 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국제사회가 호응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이루자는 말을 꺼낸 순간 평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묵묵히 기다려서 평화가 온다면 좋겠지만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며 2년여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따른 한반도 긴장 완화 과정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통한 ‘교랑국가’ 포부에 대해서도 거듭 설명하면서 “한반도의 교랑 역할은 우리 자신에게도, 동북아와 아세안에게도, 또 세계 전체의 평화적인 질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교랑국가 계획으로 동북아시아철도공동체와 신북방정책·신남방정책을 언급하고는 “평화를 통해 한국이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라고 재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라며 “이제 한국은 발전한 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여하고자 한다. 평화경제는 함께 잘사는 세계를 향한 인류의 꿈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알림 문화매일 전국주재기자 모집

전국종합일간지 문화매일에서는 적극적이면서도 진취적인 인재를 모시고자 합니다.

본지는 서울시 금천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사세 확장으로 인하여 함께 일할 참신한 인재들을 모시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 =

- 1. 전국 광고국 임원 특별대우
2. 채용인원: 전국 주재기자 및 본부장급 (전국 광역시, 서울, 경기, 인천,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3. 응시자격: 학력 성별 나이 무관 (경력자 우대)
4. 접수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5. 접수기간: 채용 완료시 까지
6. 채용방법: 직접 면접 (통신 면접도 가능)
7. 접 수 처: 총무국 (02)2612-2959 fax (02)2060-4147
8. 전화문의: 대표전화.1899-9659 H.P. 010-6440-9898

필리버스터 끝낸 선거법, 27일 표결 초읽기

홍남기 탄핵안·국회의정단 체력 문제 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전망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6일 0시에 종료되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국회법에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이후에 바로 다음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치게 돼 있다. 새로운 임시회는 민주당의 소집 요구로 26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따라서 이날부터 언제든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조용한 성탄절 보낸 北, 일주일 후 신년사 '주목'

北 남은 정치적 이벤트는 전원회의-김정은 신년사

북한이 성탄 선물 예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움직임 없이 조용한 크리스마스를 보낸 가운데,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신년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공개할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3일 리태성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의 담화를 통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정식권에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27일쯤 표결 처리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3일부터 50여 시간 동안 계속된 필리버스터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은 3일 동안 번갈아 가면서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다. 공수처법 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문 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이 초인적인 힘으로 필리버스터를 안정적으로 집행해줬다”고 말했다.

2019년 달라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올해 연말정산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박물관 입장료도 추가됐다.

월 1일 이후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도서·공연비 공제에 이어 박물관 입장료가 추가된 것이다.

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도 확대된다. 기존 기부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기부금의 30%를 세액공제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1,000만 원만 초과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다. 기존 5년에서 이월기간이 2배로 늘어났다.

월세공제 확대·산후조리원도 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30% 혜택

야간근로수당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산직근로자의 월급 기준은 월급여 190만 원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기존 생산직 공장 근로자나 운전종사자 뿐 아니라 올해부터는 돌봄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도 야근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6일 국제정세에 따르면 내년 1월 15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를 시작으로 2019년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우선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이 올해 7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이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불한 경우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

아이들의 은빛설원 지리산 자연 속 겨울나라 낭우원 지리산바래봉 눈꽃축제 2019. 12. 28 ~ 2020. 2. 9 동·동·동화 축제 2020. 1. 11 ~ 1. 27

경기도, 내년 공공도서관 14곳 개관... 28곳 리모델링



292곳으로 늘어난다. 도는 이와 함께 김포시 운양도서관, 성남시 수내도서관, 파주시 광탄도서관 등 28곳에 신규 건립 예산을 지원하고, 남양주시 평내도서관, 포천시 일동도서관, 시흥시 대야어린이도서관 등 28곳에 노후시설 개선 및 특성화서비스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공공도서관 신규 건립 및 리모델링 예산은 국비 465억 원을 포함해 도비 및 시군비 등 모두 1,837억 원이 투입된다.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무인도서관도 국도비 4억 2,000만 원과 시군비 8억 원을 투입해 12곳을 늘릴 예정이다.

조학수 평생교육국장은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공공도서관을 늘려나가고, 도민이 찾아가고 싶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시군과 힘을 합쳐 시설 개선과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국비 150억 원을 비롯해 총 859억 원을 공공도서관 신규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에 지원했다.

또한 의정부미술도서관 등 13개 공공도서관을 개관했으며, 파주법원도서관 등 24개 공공도서관은 리모델링했다.

수원/김재일 기자

내년 14개 공공도서관 개관, 292곳으로 확충

김포시 운양도서관·성남시 수내도서관 등 지원

경기도는 2020년도에 공공도서관 14곳을 새로 개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관 예정 도서관은 △고양 일산도서관(9월) △용인 성북동도서관(8월) △성남 북정도서관(1월) △화성 동탄7동도서관(12월) △시흥 배곧도서관(6월) △남양주 정약용도서관(3월) △남양주 화도전마도서관(5월) △의정부 발곡도서관(5월) △광명 연서도서관(8월) △하남 미사도서관(5월) △하남 위례도서관(12월) △안성 아양도서관(8월) △포천 선단도서관(9월) △여주 능서면도서관(12월) 등이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도내 공공도서관은 올해 말 278곳에서 내년 말

용인시 '내년 행정광고 집행기준' 조례 제정

시 정책 등 왜곡 보도 했을 경우 언론홍보자문위원회의 거쳐 배제

경기 용인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2020 용인시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용인시가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 행정 광고비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용인시 광고비 집행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용인시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용인시의 이번 행정 광고 집행 기준은 전국일간지는 ABC 발송부수, 취재의 적합성 등 홍보효과를 감안해 협의결정(3만부 미만은 지방일간지 기준 적용)키로 하고, 지방일간지는 ABC발송부수(35%), 포털 제휴(20%), 창간년도(5%), 시정보도건수(15%), 지역우대(10%), 취재의 적합성(15%)을 따져 등급을 통해 광고비를 결정하게 된다.

지역 주간지는 용인지역은 발행부수(30%), 자체생성기사(20%), 창간년도(20%), 취재의 적합성(20%), 포

털 협약(10%) 등급 및 광고비 결정 기준으로 정했다. 용인 의 지역은 취재의 적극성 등 홍보효과를 감안해 협의결정키로 했다.

또 인터넷 신문의 경우 창간년도(15%), 시정보도건수 또는 자체 생성 기사 건수(30%), 포털제휴(15%), 지역 언론(20%), 취재의 적합성(20%)을 감안하기로 했고, 통신사는 창간년도(20%), 시정보도건수 또는 자체 생성기사(30%), 매체영향력(20%), 생방문자수(20%), 취재의 적합성(10%)을 따져 광고비가 결정된다.

또한 용인시는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홍보매체의 신뢰도를 근거로 출입 기자가 기사의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와 주재기자 출신에 대한 연속성이 없는 언론사(3개월 이상), 언론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시 정책 등을 왜곡보도 했을 경우 언론홍보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배제키로 했다.

용인/남시현 기자

경주시, 농업분야 조례 제정 새로운 미래 농업 설계

농산물 가격안정화로 농가소득 기여 새해 농업도시 위상 한층 끌어올려

경북 경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3건의 조례 제정으로 경주의 미래 농업을 설계하다.

경주시는 농어업관련 조례 제정으로 새해에는 농업도시의 위상을 한층 올릴 계획이다.

경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여성농어업인의 사회적 참여, 교육기회 확대, 문화·복지 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주시농어촌민박산업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농어촌민박산업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해 기금 10억 원을 대형농기계 구입에 필요한 용자금으로 지원해 어려운 농촌에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농어촌이 풍요로운 부자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농림축산해양국 신설과 함께 각종 조례 제정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농어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며, “새해에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한층 발전된 경주시 농정을 기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경주/정승호 기자

광주시, 성남시와 오폭~분당간 교통문제 해소

국지도 57호선 교통개선 협약 체결 실무협의체 구성, 행정지원 등 합의

경기 광주시는 최근 성남시청 상 황실에서 성남시와 오폭~분당 구간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지도 57호선 교통개선 대책 수립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상습적인 교통정체로 불편을 겪는 오폭~분당간 교통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신동훈 광주시장과 은수미 성남시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시와 성남시는 국지도 57호선 광주~성남 구간에 철도·도로 신설 추진이 포함된 방안을 마련하고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한 행정지원 등 제반사항 합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주시는 성남시와 협약에 따라 국지도 57호선 광주~성남 구간의 교통 개선대책 수립 용역을 공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오폭~분당간 출·퇴근 시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태재사거리와 광명초교, 능원교차로 등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 시장은 “광주시와 성남시가 함께 추진하는 국지도 57호선 교통 개선대책은 교통수요를 분산시켜 극심한 교통난과 만성민원을 해소하고 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는 반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남시현 기자

평택, 국내 최대 '에코센터' 본격 가동

평택에코센터가 오랜 기다림 끝에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경기 평택시는 최근 고덕면 해창리 평택에코센터에서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 권영화 시의회 의장, 원우철 국회의원 및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평택에코센터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07년 사업 검토를 시작, 2016년 착공해 총사업비 약 3,400억 원이 투입됐으며 약 5만8,000㎡ 면적에 조성된 국내 최대 환경복합시설이다.

지하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지상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조성된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됐다.

주민편의시설은 홍보전시관을 비롯해 실내수영장·찜질방·실내체육관·게이트볼장·야구장·그라운드 골프장 등으로 주민들이 언제든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고덕면 지역주민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삶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펼쳐 깨끗하고 쾌적한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이동원 기자

영천시, 서부동 낙후지역에 공공주택 140세대 예정

국비 380억 확보, 영천여고 동편에 건립 낙후지역 개선 및 서민주거안정 도모

경북 영천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19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80억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으로 성내지구(영천 여고 동편 저지대) 일대를 개발해 대지면적 3,000평 규모에 공공주택 140세대(국민임대 100세대, 행복주택 40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지인 영천여고 동편 성내지구(성내동 334번지 일원)는 영천시의 관문인데도 시내 타 지역에 비해 발전이 정체되어, 지역활성화 및 인구유입을 위한 공공주택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정원이 접수되어, 최기문 시장의 '민선 7기 시장 중점 공약사업'으로 지정, 국비지원으로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발굴에 전력했다.

올해 6월부터 사업계획수립, 국토부 공모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11월 국토교통부 현장 실사 등에 적극 대처해, 최종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으로 서부동 낙후지역 개발, 서민주거안정, 인구유입 등 1석 3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 동안 개발이 정체된 서부동 지역개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영천/정승호 기자



www.huic.co.kr

하남 시민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을 짓습니다.

하남도시공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나눔경영 실천을 통하여 바람직한 공기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단 정기봉사활동과 취약계층 주거정비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하남시민 모두의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Hanam Urban Innovation Corporation huic 하남도시공사

고양시, 내년부터 노동정책서 소외된 취약계층 노동자 위한 노동정책 펼친다

'노동권의 향상' 3대 역점사업 설정하고 행정력 집중 권익센터 신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재위탁도 추진



경기 고양시가 2020년 새해부터 그동안 주요 노동정책에서 소외돼 왔던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해 보다 세심한 노동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26일 전했다.

시는 이를 위해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보장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도·소매 서비스업 등 영세업종 노동자 지원 방안 마련 등을 노동권의 향상 3대 역점사업으로 설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초에는 노동권익센터가 신설되고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재위탁도 추진된다. 이를 계기로 시는 기존 노동정책들에 대한 재점검과 함께 그동안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동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고양시는 이러한 사업들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차별과 소외 없는 노동존중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양시는 노동권익향상, 비정규직노동자지원, 노사상생을 위해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첫째, 시는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와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그동안 제도적 소외계층이었던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2016년부터 추진 중인 고양형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정책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020년 생활임금은 시급 9,990원으로 중앙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00원 많다. 고양시 및 출자·출연기관, 시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고용, 용역계약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꾸준히 진행했다. 2012년부터 운영돼온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노동상담, 공적근로교육, 공동주택 노동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경비·미화 노동자의 고용안정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충을 수렴하는 장구로서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사업방향을 마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했다.

셋째, 노사상생을 위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노사 및 민간대표, 지자체·지방고용노동관서 등과 협력해 고용 및 노사협력 등과 관련된 사항을 발굴하고 협의하는 지역협의체다.

2012년 발족해 노동환경을 선도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비·미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일주인과 상생하는 노사상생우수모범아파트 4개소를 발굴해 모범사례 확산에 힘썼다. 또한,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하는 노사상생 아카데미를 실시하는 등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2019년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노사협력 사업들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내년에는 차별받고 소외된 노동자들의 권익향상 정책에 집중해 노동존중문화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감정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도·소매 서비스업 등 영세업종 지원 방안 마련 등

우선,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만큼 올해 마련한 조례를 근거로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상담, 노동자·사용자간 교육, 홍보 캠페인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상호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도 역점 추진 사업 중 하나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당한 처우와 인권침해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및 사업주 대상 노동인권 교육을 중심으로 노동 상담 및 권리구제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중심의 소규모 영세업종이 많은 시의 특성을 반영해 노동권익센터 및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 이들 노동자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년 상반기에 개소 예정인 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들의 권익강화와 노동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들을 발굴하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요 사업으로 지역노동환경을 파악하고 노동관련 법률지원, 노동가치 인식제고를 위한 노동교육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센터에는 공인노무사가 상주해 전문적인 노동 상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노동권익센터는 고양시 노동정책 지원기관으로서 시책추진 과정에 다양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경우, 내년도 여성, 청소년, 장애인, 저임금노동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 지원에 집중하며 노동권익센터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들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보장 및 노동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더욱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동정책으로 차별받고 소외받는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와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노동자가 행복한 고양시를 만드는 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성태 기자



수원시 승격 70주년 맞아 '광역시급 도시'로 우뚝서다



6번째 고등법원인 수원고등법원 개원 마이스 산업 역할 수원컨벤션센터도

2019년은 시 승격 70주년을 맞은 경기 수원시가 명실상부한 '광역시급 도시'로 발돋움한 한 해였다.

우리나라 6번째 고등법원인 수원고등법원이 3월 개원했고 수원컨벤션센터가 문을 열었다. 또 우리나라 제2·3 도시인 부산·인천시를 제치고 내년 열릴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을 유치했다. 2019년 수원시 주요 이슈를 살펴봤다.

2007년 국회에 처음으로 고법 설치 법안의 발의된 지 12년 만에 '수원고등법원 시대'가 열렸다.

수원고법·고검 개원으로 수원시는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고등법원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고법·고검이 있는 도시가 됐다.

수원고법·고검 관할 인구는 820만 여명으로 6개 고등법원 중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수원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은 각각 영통구 하동 990번지, 991번지에 들어섰다.

경기 남부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수원컨벤션센터는 3월 29일 문을 열었다.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컨벤션홀, 전시홀, 이벤트홀, 회의실 등이 있다. 내년 호텔, 백화점, 아쿠아리움 등이 부대시설이 문을 열면 수원컨벤션센터 일원은 '마이스 복합단지'로 거듭난다.

내년 9월 8~11일에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41개국 환경장관 등이 참여하는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

포럼'이 열린다. 수원시는 수원컨벤션센터를 바탕으로 국제회의 개최 경험이 풍부한 대도시를 제치고 아·태 환경장관포럼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1949년 8월 15일 수원읍에서 시로 승격된 수원시는 70년 동안 가파르게 성장해 인구 125만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가 됐다.

승격 70주년을 맞아 지난 8월 만석공원 내 노송지구간에 길이 167m에 이르는 '역사의 길'을 조성했다. 역사의 길에는 정조 시대부터 현재까지 수원의 역사를 정리한 판석으로 이뤄져 있다.

8월 13일에는 '모두를 위한 수원'을 주제로 한 70주년 기념식, '시민, 민주주의 그리고 수원'을 주제로 시민대토론회를 열어 지난 70년을 되돌아보고 수원의 미래를 모색했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2018년 1월 출범한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돼 5개 분야 27개 기념사업을 추진했다.

3월 1일에는 화성행궁 광장과 시내 일원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제'를 열고 100년 전 수원의 3.1만세 운동을 재현했다. 수원 방화수류정과 수원역 인근에서 시민 4000여명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수원지역 항일 독립운동 가치를 재조명하고 기념하는 상징물을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건립하기로 하고 모금 활동을 했다.

상징물 제막식은 12월 20일 오후 2시 권선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다.

불합리한 행정 경계 때문에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정명센트레빌아파트



단지 거주 초등학생들이 내년부터 걸어서 4분 거리인 수원 황곡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9월 13일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수원시·용인시 행정구역이 조정됐다.

염태영 시장은 2017년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청원을 등록해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달라"고 호소하는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다. 지난 4월 수원시와 용인시가 '경계 조정 공동협약'을 체결하면서 노력은 결실을 봤다.

지난 10월에는 화성시의회가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영통구 간 행정구역변경 관련 의견 청취 건'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켜 수원시 마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불합리한 행정 경계 조정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8월 일어난 'A아파트 배기덕트 탈착 사고'는 수원시의 재난 대응 능력을 보여준 계기였다. 수원시는 사고 당일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했고 사고 발생 6일 만에 배기덕트 철거작업을 안전하게 마무리했다.

수원시 공직자, 봉사자들은 사고가 발생한 8월 18일부터 철거가 완료된 23일까지 24시간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와 현장을 지키며 주민 안전,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힘을 쏟았다.

수원시는 A아파트 배기덕트 탈착 사고 직후부터 6일간 사고 대응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백서 '재난과 과잉대응-A아파트 배기덕트 탈착 사고 6일간의 생생한 기록'을 발간하기도 했다.

수원/김재일 기자

모두를 위한 수원

사람을 품다
역사를 잇다
미래를 열다

70

수원시 승격 70주년 기념식

2019. 8. 13. (화) 09:00
수원시청 대강당 (별관 2층)

주요프로그램: 식전공연 · 퓨전국악
주요내용: 공로패 전달 · 수원70년 특집영상 · 2049 수원 미래비전
특별공연: 수원시미술예술훈 · 경기소년소녀합창단

경북도, 자연과 어우러진 누정(樓亭), '보물' 승격

전국 10개소 보물 승격 중 경북도 6개소 승격... 문화유산 위상 높여 멀리 넓게 볼 수 있도록 다락구조로 높게 지어진 누각과 경관이 수려

경북도는 6건의 경북도 지정문화재가 보물을 승격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시도 건조물 문화재에 대한 지정가치 연구를 통해 숨겨진 가치를 적극 발굴해 나가는 정책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전국 370여 건의 누정 문화재에 대해 관계전문가 검토를 거쳐 14건을 국가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최종 10건의 누정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신규 지정했다. 그중 6건의 경북도 지정문화재가 보물로 승격되는 결실을 맺었다.

누정(樓亭)은 누각(樓閣)과 정자(亭子)를 일컫는 말로, 멀리 넓게 볼 수 있도록 다락구조로 높게 지어진 누각과 경관이 수려하고 사방이 터진 곳에 지어진 정자는 자연 속에서 여러 명 또는 혼자서 풍류를 즐기며 정신수양의 장소로 활용되었던 건축물이다.

경주 귀래정은 전통건축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파격적인 방식으로 육각형 평면에 대청, 방, 뒷마루, 벽장 등을 교묘하게 분할하였으며, 특이한 지붕형식과 섬세하고 아름다운 세부 양식 등을 보여주고 있는 정자다. 육각형 평면형태의 누정도 경북 향원정(보물 제1761호), 존덕정(사적 제122호인 창덕궁에 있는 정자), 의상대(강원유형문화재 제48호) 등에서만 찾아 볼 수 있어 희소가치가 크다.

김천 방초정은 영·정조 때 영남 노론을 대표하는 예학자로 「가례증해」를 발간한 이의조가

경치를 조성하여 조경사적인 가치도 높다.

청송 관경루는 세종대왕의 비인 소헌왕후 심씨와 청송심씨 가문의 영향을 받아 지어진 관영 누각으로 중수기와 중건기, 상량문, 시문 등에 창건과 중건 과정뿐만 아니라 수차례의 공사 기록이 잘 남아 있다. 밀양 영남루, 진주 축석루, 울산 태화루 등은 사찰 누각에서 성격이 변한 누각이지만 관경루는 처음부터 객사의 부속 건물로 객사와 나란히 지어진 현존하는 유일한 관영 누각으로 의미가 있다.

봉화 한수정은 안동권씨 판서공과 후손인 충재 권벌로부터 그의 아들 청암 권동보와 손자 석천 권래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완성된 정자로 초창(1608년)에서 중창(1742년), 중수(1848년, 1880년) 과정에 대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역사 가치가 크다.

또한, 용연(龍淵)과 초연대(超然臺 정자와 연못사이)에 있는 바위,



▲경북의 누정 보물승격2-김천 방초정



▲경북의 누정 보물승격1-경주 귀래정



▲경북의 누정 보물승격3-안동 청원루



▲경북의 누정 보물승격4-안동 체화정

1788년 중건하였다. 보통 누정은 자연의 경관 조망과 관찰자를 매개하기 위하여 사면이 개방된 구조이지만 방초정은 계절의 변화에 대응하여 마루와 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는 가변적인 구성을 가진 정자로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안동 청원루는 경상도 지역에서 드물게 'ㄷ'자 평면 구성을 띠는 매우 희귀한 정자형 별서(別墅) 건물이다. 17세기 향촌사회 유력 가문(서인 정서파의 영수 김상헌)의 건축형태를 엿볼 수 있는 시대성과 계층성이 반영된 연구자료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안동 체화정은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하고 창의적인 창호 의장 등에서 18세기 후반 조선 후기 목조건축의 우수한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정자의 전면에 연못과 세 개의 인공 섬을 꾸미고 적극적으로 아름다운

각종 수목이 어우러진 정원은 초창 이후 400년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ㄷ'자형 평면구성과 가구법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형식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앞으로도 우리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 중 가치 있고 우수한 문화재를 적극 발굴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하여, 도 지정 문화재의 위상을 높이고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정초 기자

사방이 터진 곳에 지어진 정자는 자연 속에서 풍류 즐기며 정신수양 장소로 활용되었던 건축



▲경북의 누정 보물승격5-청송 관경루



▲경북의 누정 보물승격6-봉화 한수정

고민정 대변인 “한국당, 대한민국 국격 왜 못 믿나 반문하고 싶어”

중화 사대주의 비판에 “이미 어느 나라에도 놀리지 않을 국격” ‘中, 방일 때 방한 검토’ 보도에 “이래도 저래도 하는 게 아닌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는 뻣속 깊이 박힌 중화 사대주의를 벗어나기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방중(訪中) 행보를 비판한 데 대해 “왜 대한민국 국격을 그렇게 믿지 못하는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고 일축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24일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이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23~24일)했던 문 대통령 외교가 “중국 저자세 외교였다”는 취지로 논평을 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반박했다.

고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격은 정권과 상관없이 정치 이념과도 상관없는 문제여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현재 대한민국의 격은 어느 나라에도 놀리지 않는 위치에 이미 와 있는데 불구하고, 거대 야당에서 이런 단어를 입에 올린다는 게 과연 중국 정부에는 어떻게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의 계기 한중·한일 정상 간 만남으로 여러 성과가 있었음을 강조했

다. 먼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국을 향한 비공식 보복 조치인 한한령(限韓令·한류 규제)이 속히 해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이전 보다 훨씬 부드럽고 편한 자리였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한중 양국이 손을 잡으면 많은 일을 해 낼 수 있다. 이런 진짜 나의 진심 어린 말이다’라고 말했고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인 것처럼 중요하게 사안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며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나 한중 FTA에 아주 강한 의지를 보였고, 중국에 투자해 기업활동을 하는 한국 기업은 중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거라는 말도 했다. 한국에 투자를 희망한다는 등의 얘기도 참 많았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아울러 한일 정상회담에 있어서 “분명 이견들도 존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팽팽한 긴장감도 있었지만, 양국이 어떤 걸 숨기는 게 아니라 정말 허심탄회하게 서로 듣고 애



기하는 자리였다”며 “결국 (조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씩 매듭을 풀어나가야 결국 실이 풀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 양 정상에 매듭을 처음 푸는 역할을 해주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유보 조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해서 “시한 없이 막무가내로 계속 (유보로) 트여 있는 건 아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 시기는 생각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건과 관련한 문희상 국회의장안(1+1+α·한일기업 기금과 국민연금)

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의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금 무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만 피해자 분들의 동기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건 여전히 동일하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풀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을 가는데 한국을 들었다 간다고 하면 왜 그렇게 묶어서 오느냐고 비판을 할테고 일본을 가는데 한국을 가지 않는다고 하면 패싱을 했다고 할테니 이래도 저래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백귀성 기자

파주시의회, 2021년 경기도체육대회 유치 추진



경기 파주시의회는 최근 수원에서 3개의 시군(파주시, 용인시, 가평군)이 경합을 벌인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지 선정 투표 현장에 힘을 보태기 위해 참석했다고 26일 밝혔다.

파주시의회는 지난달 21일에도 경기도 체육회 현장실사단과 함께 개최지 선정을 위한 유치설명 및 주경기장의 파주스타디움과 개최식장인 임진강평화누리 현장실사에 참석했다.

파주시의원들은 “파주시의회에서도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

태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대통합을 이룰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2021년 파주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손배찬 파주시의장은 “46만 파주시민의 스포츠축제가 되어줄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아프리카 폐지열병으로 힘들어하는 파주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며 “파주시의회에서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성태 기자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 주민 불편 언급



경기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은 최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근 물류센터로 인한 남사면 한술시터아파트 주민들의 불편과 위험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은 7,000세대의 전국 최대 규모라고 말하는 남사면 한술시터아파트의 주민들은 불과 1km 거리에 위치한 지산물류센터로 인해 출퇴근시간대의 극심한 교통체증과 소음, 분진, 진동은 물론 이른 아침에는 병판을 이루기 일쑤고 낮 시간대는 공사장 진출입 차량으로 아수라장을 이루는 도로 상황으로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최근에는 이 곳 물류센터 현장에서

화재까지 발생해 많은 주민이 공포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러 문제의 이 물류센터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 사이에 개발행위허가부터 착공신고까지 초고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편도 1차선에 불과한 지방도 도로에 어떻게 수십만 제곱미터 규모의 물류센터 허가가 날 수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얼마전 용인시와 지산그룹이 물류센터에 취업 100명을 약속하며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말하고 소수의 취업보다 한술시터 주민의 생활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남시현 기자

선거법 처리 앞두고 한국당 ‘비례정당’ 창당 압박

심재철 “선거법 철회하면 한국당도 비례정당 만들 필요 없어” 주장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의 표결 처리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 창당’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미 비례 정당 창당을 기정사실화 했지만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의 처리를 철회할 경우

비례 정당 창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당이 비례 정당 창당을 창당할 경우 범보수 진영이 4·15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선거운동에 따른 정당별 쉐빙이 복잡하게 돌아가자 이를 최대한 부각해 선거제 개정을 철회를 끌어내겠다는 계산인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본청 본회의장 앞 로테이션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선거법을 철회한다면 한국당도 비례 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고, 민주당도 비례민주당 창당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며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것에 불안을 느낀다면 선거법을 포기하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원안과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은 국회법상 수정과 동의의 넘어선 별개의 법안”이라며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할 것”이라고 했다.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은 “오로지 자신의 이득만 취하려던 민주당과 원내교섭단체도 되지 않는 기타 정당이 자충수를 뒀다”며 “불상식한 여권 정치인들은 자신의 기득권, 이익을 위해 쫄쫄의 쫄쫄을 두다가 자충수를 두게 됐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한국당에서는 내일 선거법이 통과되면 그에 상응하는 비례당을 만들겠다”며 “지금 여당과 기타 정당들에 역사적 심판을 국민께서 엄정하게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례 한국당 최고위원은 “한국당의 의지를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은 비례대표한국당을 만들겠다”며 “심상정 표 코미디쇼가 어떻게 허망하게 망가질 수 있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의 의지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최광수 기자

한국당, 문희상 국회의장 고발

자유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권영진 국회 의사국장을 각각 직권남용과 직권남용 방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사법 문 의장이 자의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한 것과 반대토론 기회를 박탈한 임시회기 결정 안건 상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문 의장은 지난 23일 한국당 의원들이 신청한 국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토론 요구를 거부해 소수자 보호를 위한 유일한 저항수단인 필리버스터의 실시를 방해했다”며 “당초 27번째 안건이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4번째 안건으로 변경해 기습상정시켰다.”

동 법안은 ‘4+1’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어가 함의한 수정범위를 벗어난, 졸속 입안된 법안”이라고 형사고발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한국당은 이어 이날(26일) 중 권영진의 심판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광수 기자

의정부시 UIJEONGBU CITY

시민이 잘 살고 건강한, 희망도시 의정부

천혜의 자연경관 속에 유서 깊은 역사를 간직한 의정부는 시민과 호흡하며 도시의 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전주시, 버스파업도시서 지속가능 교통도시로 성장



대중교통 시책평가서 2회 연속 최우수 지자체 선정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위한 정책적 노력 인정받아

과거 버스파업도시로 불렸던 전북 전주시가 불과 몇 년 새 시내버스 혁신을 이뤄내면서 버스타기 편리한 도시로 인정을 받고 있다. 특히 시는 최근 정부가 실시한 각종 도시교통정책 평가에서 꾸준히 수상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으면서 지속가능한 교통도시로 나아가고 있음을 입증했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9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우

수상을 수상해 한국교통연구원장과 3,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지난 2017년과 지난해 평가에 이어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인구 10만 명 이상의 75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속가능교통에 관한 현황 및 정책을 평가한 이번 평가에서 시는 인구 30만 명 이상

단일도시로 구성된 '나'그룹으로 분류돼 환경 사회 경제의 3개 부문에 32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시는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 보행자 및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적 노력,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 노력, 교통관련 정부정책과 부합성 인접 시·군과의 협의노력 등을 인정받아 교통기반이 지방에 비해 월등히 앞선 수도권 도시들과 경쟁해 3년 연속 우수상을 받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평가에서도 교통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통한 대중교통 경쟁력 확보 노력 교통약자 및 교통안전개선을 위한 정

책 추진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연속으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시는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서울 코엑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열린 '2019년도 대중교통 시책평가' 시상식에서 직전 평가인 2017년에 이어 2회 연속으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는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인구 30만 이상 도시로 구성된 C그룹으로 분류돼 60년 만에 실시한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통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인 점 광역철도교통카드 시범사업 시민의 버스위원회 운영 예술 있는 승강장·탄소발열의자·한겨울 방한텐트·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전자노선도 설치 농촌마을 이동권 확보를 위한 도심택시 운행 도시확장에 따른 지속적인 노선조정 노력 등 정책 우수성을 인정받아 1등을 차지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3년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는 버스파업 등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전국 최위권이라는 불명예와 버스파업도시라는 불명예를 안았지만, 지난 민선6기 출범 이후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집중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펼친 결과 버스타기 좋은 도시, 걷고 싶은 도시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장병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이 상은 지속가능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 다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힘을 모은 결과물"이라며 "지속가능한 교통기반을 조성해 교통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도시를 미래세대에게 이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최만식 기자

오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30% 육박



올해만 총 7곳 어린이집 개원해 적극적인 보육정책 공공성 강화

경기 오산시는 보육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최근 시립운암6단지어린이집 개원식에 이어 시립파크시티어린이집 개원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오산시는 이로써 올 들어서만 7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하는 등 적극적인 보육정책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30%를 육박하게 됐다. 오산시 국공립어린이집은 모두 39개소로 설치율이 15%로 전국 평균 10%, 경기도 평균 7%보다 높으며 공공보육률은 30%로 전국 평균 17%보다 높고 경기도 평균 14%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이번에 개원한 '시립운암6단지 어린이집'은 오산에서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첫 사례로 LH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설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20년간 무상으로 이용하게 되며 '365·24 시간제' 보육시설로 지정되어 오산시

특화된 시간제보육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서동탄역 다담 파크시티아파트 단지 내 위치한 '시립파크시티어린이집'은 지난 4월 오산시의 아파트 시행사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을 맺고 오산시에서 리모델링 공사비, 기자재 구입비 등 지원을 통해 39번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하게 됐다. 이날 개원식에 참석한 박상욱 시장은 "시는 아동친화도시, 출산보육도시로서 학부모와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공공보육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한편 보육과정에 학부모와 보육교직원은 물론 지역사회가 다함께 참여하는 열린 어린이집,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등으로 아이들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개원식에 참석한 학부모는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보육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행복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오산/이승배 기자

경남도, 승강기사업자 등 특별점검 27건 적발

제조업·유지관리업, 운행정지 승강기 등 직무교육 미이수 중대고장 통보누락 조치

경남도가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2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경남도 민생안전점검과는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도내 승강기 제조업 20개사 및 유지관리업체 49개사,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30개소를 대상으로 승강기사업자의 제도 이행 여부, 운행정지 승강기의 불법운행 여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3월 전면 개정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사업자의 등록기준 준수 등 제도 이행 여부와 승강기 중대고장 통보 누락, 승강기 유지관리 현장의 자체점검 실태 등 승강기 사업자의 의무사항 전반을 점검했으며, 아울러 검사 불합격, 검사 연기 등의 이유로 현재 운행정지 중인 도내 30대



승강기의 관리실태도 표본점검했다. 점검결과, 승강기 제조업 기술인력 직무교육 미이수, 등록기준 변경사항 기한 내 미신고, 승강기 중대고장 발생 공단 통보 누락 등 총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중대고장 통보 누락 등 7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운행정지 표지 훼손 등 20건은 시정조치했다. 승강기가 운행 중 정지되어 이용자가 갇히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자는 고장 사

실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경남도는 관리주체의 각별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명욱 경남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승강기는 도민들이 늘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사고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도민들이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시설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최만식 기자

파주시,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경기 파주시가 임산부 탑승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신설 및 승용차 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비율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파주시는 임산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 체증과 매연을 줄이기 위해 임산부 탑승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신설과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비율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해 12월 27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보건소에서 발행한 모자보건수첩 및 산모수첩, 임신확인증 등을 제시한 자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토록 했다. 김진우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공영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 감면뿐만 아니라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 시민들의 주차 편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성태 기자

고양시 '꿈의 버스' 새로운 도약의 시작

장애인 여행지원 사업 위탁 공모해 버스 운전기사·유류비·통행료 지원

경기 고양시는 지난 11월 장애인의 여행지원을 위한 꿈의 버스 사업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 공개모집을 실시해, 최근 적격심사를 통해 사단법인인 홀트아동복지회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양시를 대표하는 장애인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 '꿈의 버스'는 가족 또는 장애인 모임의 여행을 원하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에게 버스와 운전기사, 유류비, 통행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양시 꿈의 버스는 2016년 4월부터 장애인연합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버스 한 대로 운영을 시작했고 2017년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하며 버스 한 대를 추가 구입해 현재 2대의 버스로 월 평균 4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매주 4~5회, 월평균 20회 가량 운행 중이며 특히 월 1~2회 항공우주 박물관, 배다골 테마파크, 행주산성,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점 등의 무료 시설 방문과, 연 2~5회 엠블호텔 고양점과 컨택 캠프장의 시설 이용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는 지난 2년간 운행해 온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재정적 별다른 혼선 없이 기존 신청하던 홈페이지와 연락처를 통해 계속해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새롭게 공모를 통해 재선정된 만큼,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꿈의 버스가 어떻게 새로운 모습으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지 꿈의 버스의 변화가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고양시 꿈의 버스가 더 큰 도약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 가족에 따뜻함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김성태 기자



번개처럼 빠르게 저장하다

삼성전자 포터블 SSD X5 Thunderbolt™ 3 외장 스토리지

Thunderbolt™ 3 기술과 NVMe 인터페이스를 탑재한 삼성전자 포터블 SSD X5는 전문 콘텐츠 제작자에게 필요한 눈부신 전송속도를 선사합니다. 슈퍼카를 달은 세련된 디자인, 첨단 열 처리 기술과 압축화 기술로 완성한 최상의 스토리지를 경험해보세요.

* USB 인터페이스 기능만 지원하는 PC에서는 호환이 불가능합니다. Thunderbolt™ 3 포트가 설치된 Macs 및 Windows PC에서만 호환 가능하며, 호스트 구성에 따라 성능은 다를 수 있습니다. (Mac OS X Sierra, High Sierra 10.12 또는 그 이상, Windows 10 64 bit RS 2 또는 그 이상) 최대 읽기/쓰기 속도 실험 시스템 환경: Dell Alienware System (Dell 17 Alienware 17 R5), OS - Win 10 x64, CPU - Intel® Core™ i7 8570H(4.1GHz), Memory - DDR4, 16GB 2667 MHz, BM Tool - CDM 5.1.2

X5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samsung.com/portable-ssd에서 확인하세요.



수도권 주민 82% “DMZ 활용·개발 시 환경적 가치 우선”

경기연구원, 남북 환경협력 관련 설문조사 실시 자연환경·하천·상하수도·자원순환·대기 등 제시

남북관계가 개선돼 개발여건이 좋아져도 세계적인 생태계 보고인 DMZ를 보전하고, DMZ 접경지역을 지속가능한 발전모델 개발의 중심축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향후 남북교류가 활성화되었을 때를 대비한 환경 분야별 남북협력방안과 DMZ 인근 지역의 개발과 활용 방향을 제안한 『경기도의 남북 환경협력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에 앞서 수도권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남북 환경협력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 87%가 DMZ의 환경적 가치가 높다고 응답했다. DMZ와 접경지역 활

용·개발 시 우선시해야 할 핵심 가치로는 경제(17%)보다 환경(82%)을 선택했다. 남북 접경지역의 주거지 형태로는 67% 응답자가 마을단위의 분산된 주거지를 선호했으며, 접경 지역의 에너지 공급방식에 대해서는 66% 응답자가 태양에너지 등 재생 에너지를 선택했다.

DMZ와 접경지역의 경제적 가치보다는 환경적 가치가 월등하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는 환경 분야별 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자연환경) 산림병해충 피해회복, 양묘장 현대화 ▲(하천) 수변 완충구역 설정, 강하구 거버넌스 운영 ▲(상하수도) 취수원과 취수방식 결정, 하

수시설 기술지원 ▲(자원순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자원순환계획 수립 지원 ▲(대기) 모니터링과 배출원 조사, 사업장 관리기술 지원 ▲(에너지) 소형 태양광 지원, 임진강 생물권 보전지역에 에너지 자립마을 모델 구축 ▲(보건) 남측의 제약과 북측의 천연물 소재를 결합한 R&D 추진, 남북 가축전염병 공동대응 등이다.

세계적인 생태보고인 DMZ 인근 지역은 DMZ 보전방안을 구체화한 다음에 환경보전과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개발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DMZ 보전방안으로는 국립공원 지정,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가장 효과적이다. 다음으로 용도지역지구제(Zoning)를 적용하거나 산출기, 물줄기, DMZ의 방향성을 고려한 선(線)계획과 용도지역지구제를 결합하여 보호지역을 정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입한 이후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DMZ 보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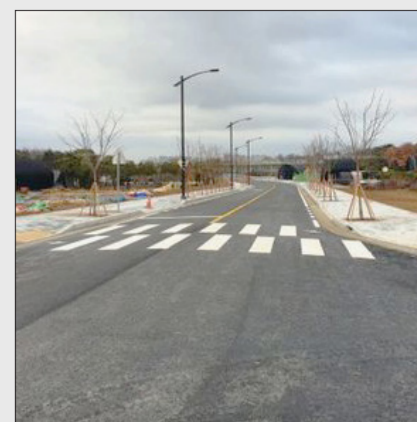
광역상수도는 규제에 의한 상·하류 간 갈등과 단일취수원 의존에 따른 위험성 등의 문제가 있고,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소 등에 의존한 에너지 공급체계는 핵폐기물처리,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의 문제를 일으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를 수행한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과 개발 전문가, 관련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한 ‘DMZ 지속가능 발전위원회(가칭)’를 만들어 백지상태인 DMZ 인근 지역에 기존의 남측 개발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발전방식을 창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구상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박귀성 기자

고양시, 항공대 연결도로 개설공사 완료

화전동 일원 낙후된 도로망 확충 나서 62억 들여 길이 425m, 폭15m 완공



경기 고양시는 덕양구 화전동 일원의 낙후된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 항공대학교를 우회하는 도로 개설사업인 ‘항공대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했다.

덕양구 화전동에 위치한 항공대학교 정문에서 시도74호선이 단절되어 시민들은 노후화되고 차량교행이 어려운 기존 농로를 이용하거나, 협소한 기존농로를 피하기 위해 항공대학교 교내를 이용해 통행하곤 했다. 이로 인해 교내 잦은 안전사고가 발생해 학생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항공대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도로개설사업은 총사업비 6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난 2018년 5월에 공사 착공했고 1년7개월 만에 길이 425m 폭15m의 도로가 완공됐다.

이를 통해 항공대학교 교내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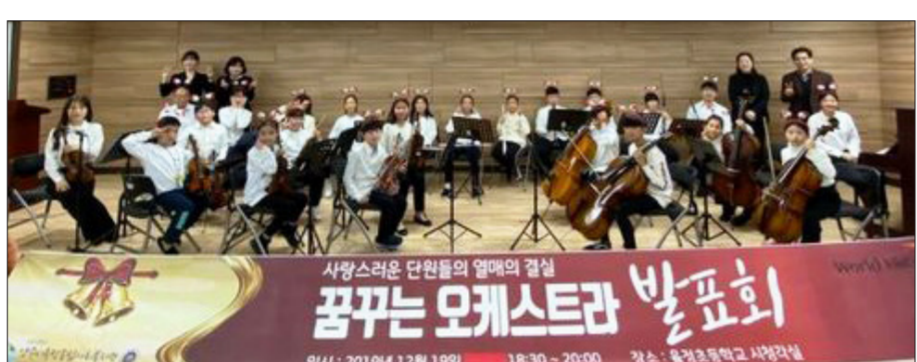
사고 예방과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화전동 일원으로부터 제2자유로와의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교통분산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도로 개설로 인해 화전동 지역의 교통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도로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양/김성태 기자

양주시, 옥정신도시 야간경관으로 아름다움 더해

중앙·선돌·독바위 공원 등 3개소 시민들 즐길거리와 소통공간 마련



경기 양주시가 옥정신도시 도시공원 내 야간경관 사업을 통해 겨울밤 아름다움을 더한다.

시는 옥정신도시 내 옥정중앙공원과 선돌공원, 독바위공원 등 3개소에 야간경관 사업을 추진, 겨울철 공원 이용객 등 시민들의 즐길거리와 소통공간을 마련한다.

또, 3개소의 도시공원별로 특색있는 경관조명 시설물과 콘텐츠를 도입 삼색의 불거리를 제공한다.

옥정중앙공원은 인공호수와 야외무대 인근의 공원 내 시설물을 활용, 나무조명을 이용한 따뜻한 포도조과 달과 토끼의 조형물조명을 설치, 누구나 친근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소망나무는 내년 1월 31일까지 계획 예정이며, 독바위를 스크린 삼아 진행하는 미디어과사드는 매일 저녁 7시, 8시, 9시에 각각 10분간 진행하며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한층 풍성한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선사시대 ‘선돌’ 유적을 품은 선돌공원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토속장신구 ‘드림캐처’를 모티브로 조형물조명을 설치, 빛이 발산하며 바다

에 투영되는 문양들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시 관계자는 “양주시민들이 일상생활 속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공원 내에 각양각색 공간을 조성했다”며 “시민이 공감하는 신성장 활력 도시 양주 조성을 위해 도시경관 경관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주/김영근 기자

시흥시 연말 불법행위 일제 단속

시흥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3일 소속 공무원과 단속원 등 20명이 월곶동 상업지구 일원에서 도로무단점용 정비 캠페인을 가졌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노상적치물, 가로경관을 훼손하는 의류수거함,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노점 영업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

특히 시민과 상인들에게 도로무단점용 행위에 대한 관련법규 및 과태료 사항을 안내해 올바른 인식을 공유하고 계도하는 기회를 가졌다.

시는 지역별 맞춤 테마형 야간 단속을 주2회 실시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

시흥/이승배 기자

경주소방서, 소방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 행위 근절 각종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

경북 경주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중요한 피난시설로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것으로, 이는 피난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신고 대상으로는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

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로 소방시설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 및 비상구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경주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금 심사회의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창수 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써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설이므로 적법하게 관리해 소방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정승초 기자

의정부시, 새해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1월부터 향후 5년간 단계적 인상기로 신설되는 75리터 봉투 가격 3,000원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6년 동안 동결해 온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2020년 1월부터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

가격은 5리터 180원, 10리터 310원, 20리터 620원, 50리터 1,65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신설되는 75리터 종량제봉투의 가격은 3,000원으로 책정됐다. 시는 이번 75리터 종량제봉투 신설이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정부/김영근 기자

경북도 골프장, 농약 사용기준 잘 지켜

고독성·잔디사용금지 농약검출 안돼 보건환경연구원, 농약 잔류량 발표

경북도는 2019년도 도내 16개 시·군 50개 골프장의 수질 및 토양시료 900건을 조사한 결과, 법으로 금지하는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청정·한국·봉화

전원생활 녹색도시 봉화

천혜의 산수와 자연경관이 당신을 반깁니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청정한 땅을 간직한 봉화...
아름답고 수려한 산세와 맑고 깨끗한 계곡이
태고의 멋과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살아있는 관광지,
새로운 활력을 찾으러 봉화로 오세요!

GREEN ENERGY

봉화군

화성시, 융합신제품 실증 '스마트 안전 리빙랩' 개소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대상으로 개발 시장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구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가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에 '스마트 안전 리빙랩'을 구축하고 최근 개소식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생기원 이상목 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서철모 화성시장, 이원욱 국회의원, 안세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장, 화성시의회 신민숙 경제환경위원장, 정동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오명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원장, 양우석 홍익대학교 총장 등 산·학·연·관 주요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스마트 안전 리빙랩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발된 융합신제품 출시 및 시장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생기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구축한 사용자 참여

형 실험실이다.

화성에 들어선 생활안전 리빙랩은 총 사업비 160억 원이 투입돼 동탄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 3층에 1,208㎡ 규모로 구축됐다.

가정·요양원·유아원·호텔과 유사한 실제 실험공간, VR장비를 갖춘 가상 실험공간,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프로토타이핑 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사용자의 실제 활동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시선추적기, 동작분석시스템, 관찰카메라 등 15종의 사용자 정보 측정 장비도 구비했다.

이 외에도 2020년까지 환경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등 3종의 환경 측정 장비와 제품의 물리적 특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8종의 시험평가 장비도 도입될 예정이다.

안산의 산업안전 리빙랩에 이어 이



번 생활안전 리빙랩이 문을 열게 되면서 스마트안전 리빙랩 센터의 실증 지원 기반시설이 모두 구축됐다.

지원센터는 안전 분야별로 융합신제품의 사용자 실증 지원을 이원화해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 분야는 산업안전 리빙랩에서 일상 환경 안전 관리 분야는 생활안전 리빙랩에서 각각 담당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민선 센터소장은 "안전 분야 신제품은 사용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성능, 안전성, 편의성 등에 대한 사전 실증 및 인증이 중요하다" 며

"센터 개소로 사용자 중심의 실증과 인증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어 혁신기업들의 사업화 기력, 제품 출시와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개소로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융합 신제품 서비스 확산은 물론 관련 기업들의 동반 성장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기원이 기업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다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용범 기자

양주시, 회정역사 신설 2021년 본격 착공

교통복지와 삶의 질 향상 등 지역발전엔 기폭제가 될 전망

양주시에서 역점 추진 중인 회정신도시 내 경원선 회정역사 신설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확정 받았다.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원선 회정역사 신설의 경제성을 인정받음에 따라 오는 2021년 착공을 목표로 회정역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정역은 735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용인구 6만여 명 규모로 조성 중인 회정신도시 내에 건설될 예정으로 덕계역, 지구경계에 위치한 덕계역과 함께 양주시민의 교통복지와 삶의 질 향상 등 지역 발전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시는 2023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회정역의 조기 건설 추진을 위해 국회의원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 국토교통부와 한국도지사

백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회정역사 신설 사업인정에 따라 시는 2020년 한국도지사주백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와의 사업착수를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 오는 2021년 착공에 들어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회정역사 신설 승인으로 양주역세권개발사업과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옥정·회정신도시 등 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모든 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며 "GTX-C노선, 전철 7호선 연장 등과 함께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양주/김영근 기자

발로 땀 소셜기자단, 더 빛난 고양시 SNS시민소통



시정 정보 신속 정확하게 전파해 시민소통 공감대 형성 앞장서

고양시는 최근 고양시정연수원 가와지법서홀에서 '제2기 고양시 소셜기자단'의 2019년 한 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연말 성과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양시 시정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해 시민소통의 공감대를 형성해온 기자단 50명의 노고를 격려하고 활동성과를 공유하

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우수 활동기자 수여, 소셜기자단 운영성과 공유, 힐링 특강 '네온사인 DIY'를 통한 2020년 비전 찾기와 셀프 브랜딩 전략'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올 한 해 정성을 다해 작성해준 기사에서 고양시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자단 여러분께서 고양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소통 사각지대를 비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고양/김성태 기자

안산, 안전관리 우수시설 인증패

안산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실태가 우수한 이마트 트레이더스 안산점에 '안전관리 우수시설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 2018년부터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전기·가스·건축 등 안전관리분야 종합평가를 통해 우수시설을 선정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안전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 27개소에 대해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6개월여 동안 1·2차 교차점검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마트 트레이더스 안산점을 안전관리 우수시설로 선정했다.

전날 진행된 수여식으로 시설안전인증 수여기관은 롯데백화점 안산점, 롯데마트 안산점, 홈플러스 고잔점, 세화병원, 단원병원, 이마트 고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안산점 등 총 7개소로 늘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설안전인증제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취약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이승배 기자

광명시, 내년부터 보편적 교육복지 '앞장'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10만원 지원 박승원 광명시장 축하 메시지 담아

광명시가 내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입학 축하금으로 1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첫 출발을 응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광명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3억여 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대상자는 3천여 명이다. 입학 축하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한다.

내년 3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절차는 오는 2월 시청 누리집(<http://www.gm.go.kr>)에 공지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취약동지사와 함께 입학 축하하는 박승원 광명시장의

메시지가 담긴 입학축하카드도 함께 전달한다. 카드에는 양육에 힘써온 부모에 대한 감사와 함께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키우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신념으로 교육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교육은 지역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교육공동체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며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 모든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마음껏 배우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보다 앞서 3대 무상교육을 실현한 광명시는 이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도 전국 최초로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지원한다. 시는 앞으로도 보편적 교육복지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광명/김미성 기자

용인시, 종량제 물품대 '알림톡' 서비스 실시

지정판매소 대상 인터넷 카드결제 시작 주문·입금 등 다양한 정보 실시간 통보

용인도시공사는 1,600여 종량제 물품 지정판매소를 대상으로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와 주문·입금내역 '알림톡 서비스'를 내년 1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도시공사 종량제 물품 판매사업소를 방문할 때만 가능했던 신용카드 결제를 인터넷 결제에도 허용한 것이다.

공사는 이들 소매점이나 편의점에

매년 2,000만 매 가까운 종량제 봉투와 폐기물 스티커를 판매·배송하고 있다.

공사는 또 주문이나 입금 내용 등 각종 안내사항을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자 메시지에 비해 더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착오로 인한 메시지 삭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정판매소 위치 조회와 휴무일 정보 등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남시현 기자

양주 '선배시민과 함께하는 별의별 예술제' 성료



회천노인복지관서 송년행사 가져 시군·한글·서예 등 작품 전시도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은 최근 회천노인복지관 강당에서 송년행사인 제1회 '선배시민과 함께하는 별의별 예술제'를 진행했다.

양주오피스디포와 에드스토리의 후원 하에 대진대학교 및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 선배시민봉사자들이 함께한 이날 행사에는 이성호 양주시장을 비롯해 정성호 국회의원, 이송주 회천3동장, 이재용 노인복지회 양주시지회장 등의 축하인사로 포문을 열었다.

관내 500여 명의 어르신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1, 2부로 나눠 진행했는데 우선 1부에서는 난타, 하모니카, 라인댄스, 사교댄스, 민요 등 어르신들이 7개월간 배우기 익힌 재주를 선보였으며 2부에서는 가야금병창

박경남과 노래교실 강사 서현희, 가수 장민혁 등의 축하 무대가 이어져 행사의 흥을 돋우었다.

뿐만 아니라 행사장 로비에 는 사군자, 한글, 서예, 사진 등의 작품전시와 더불어 복지관 대화사업 '아계동무' 프로그램으로 어르신과 시각장애인의 합작품인 스트링아트까지 함께 선보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술제에서 함께 수미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개관 후 처음 개최하는 별의별 예술제의 시작을 응원한다"며 "양주시에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더욱 다양한 여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김영근 기자

파주시 '학교시설개방 업무 협약식' 체결

학교공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 주민 집주변서 쉽게 이용 가능

파주시는 최근 파주교육지원청 및 지역 내 9개 학교와 학교시설개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주민에게 집주변에서 쉽게 이용 가능한 생활체육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학교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공유경제를 실현하게 된다.

파주시는 협약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에 따르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고 파주교육지원청은 개방운영 모니터링 등 개방학교를 지원하게 된다.

학교에서는 주민 이용 증대를 위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적극 개방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하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김성태 기자

골목경제 살리는 안산화페 '다운' 공모전 시상

시민 참신한 홍보 콘텐츠 발굴 나서 '안산지역화페 다운으로 FLEX' 선정

안산시는 골목경제를 살리는 안산화페 '다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참신한 홍보 콘텐츠 발굴을 위해 실시한 '영상공모전'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함께 상금을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연말 시민 수상식'에서 진행된 수여식에는 최우수상 '안산지역화페 다운으로 FLEX' 우수상 '다운이 골목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첫 발행된 안산화페 다운은 발행액 300억 원이 모두 매진돼 발행 첫 해 완판 기록을 세웠다.

시는 내년 발행액을 5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사용 가능한 가맹점 카드식 3만8천개소, 지류식 1만4천240개소를 바탕으로 내년 설 명절을 맞아 한 달간 특별할인 10%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산/이승배 기자

이천시, 민원처리 단축·장기 미해결 민원처리 해결



우수공무원 4명, 우수부서 4팀 평가 통해 선정 적극행정으로 주민들의 어려움 해소하는데 노력

이천시는 올해 민원처리 단축과 장기미해결민원 및 다수 갈등민원을 해결하는데 노력한 우수공무원 4명과 우수부서 4팀을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

본 평가는 민원처리 단축률이 우수한 '민원처리분야', 갈등·고충민원을 해결한 '민원소통분야', 실무종합심의회 성실도를 평가한 '실무종합심의회분야' 등 모두 3개분야를 평가했

으며 이번에는 특히 민원소통분야에서 6개팀 직원이 참여 했는데 모두 주요갈등민원을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만히 해결하거나, 장기미해결 민원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해결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정을 위한 심사는 이천시의 민원을 모니터링하는 채용모니터가 함께 참여했으며 민원소통분야에서 최우수는 도시개발과 조진만 주무관

이 선정됐다.

이날 심사에 참여한 채용모니터 김모씨는 '민원에 대한 모니터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민원 해결과정을 직접 설명을 들어 보니, 얼마나 많은 노력했다는 것을 알수 있어서 시정을 볼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다'며 '작은 힘이나마 이천시를 위해 보탬이 되는 모니터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우수를 받은 조진만 주무관은 중리신도시현대지역주택조합이 그동안 1년여 동안 학교용지 확보문제로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이천역세권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8차에 걸쳐 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주택조합등 민관협업을 진행했고 학생배치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조합 주민들과 50통이 넘는 전화상담을 하면서 법적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적극적으로 경기도 사전컨설팅을 의뢰한 결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제도적 문제점을 풀어내어 향후, 5주간 기관·단체가 협약을 맺을 예정이며 이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 협약에서 지역주택조합에서 학교용지 추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해당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 공급하는 방식으로 학교용지 확보·공

급하게 되며이천시는 조합으로부터 학교용지 추가 확보 비용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함으로써 추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우수에는 환경보호과 이철연 에너지관리팀장이 선정됐다.

이철연 팀장은 실성면 제요리 한 부락에 고압가스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신청이12개소가 한꺼번에 접수되자, 주택지와 거리가 가까워 자칫하면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산자부에 질의를 통해 민원 갈등 문제를 해결했다.

특히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중에 있어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행정을 펼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부서에는 sk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따른 집단 갈등민원을 협업으로 해결한 기획예산담당관, 신문면, 증포동이 공동 선정됐다.

이천시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 갈등민원, 장기미해결 민원을 해결하는데 노력한 공무원들을 적극 발굴해 사기진작을 위한 시상을 할 계획이며 선정된 우수 공무원은 종무식 때 시상한다고 밝혔다.

이천/남시현 기자

화성시 동탄아름드림센터, BF '최우수' 획득



화장실 사용유무 LED 표시등 설치 가족 장애인화장실 등 구비해 충족

화성시 동탄아름드림센터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 2017년에도 화성시아르뎁복지관이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BF인증은 장애인·노인·아동·임산부 등 모든 이용자가 시설물을 이용 시 불편이 없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해 설계단계와 준공단계를 평가·인증하는 제도이다.

이 가운데 최우수 등급은 매개 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에 대한 75개 항목이 인증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충족되어야 획득할 수 있다.

동부권 장애인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지난해 10월 건립된 동탄아름드림센터는 모든 이동 구간 무단차 시공, 화장실 사용유무 LED 표시등, 수중 재활실 경사로, 가족 장애인화장실 자동문 승강기 내부 확인 모니터 등을 구비했다.

이에 모범사례로 대전 행복한우리복지관, 하남 장애인복지관, 수지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 경기도 내 16개 복지관 등이 벤치마킹을 다녔고 지속적으로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성준모 장애인복지과장은 "BF 최우수 등급 인증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도 모든 사용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나은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김용범 기자

광명시,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위한 첫 걸음

14명 운영위원회 구성, 위촉식 가져 2020년 장애인 평생학습 원년의 해

광명시가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애인들의 평생학습권 보장에 적극 나섰다.

시는 지난 11월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이를 근거로 장애인, 지역주민, 장애인 단체 대표 및 종사자, 특수교육 및 평생교육 전문가, 시 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된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광명시는 24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2020년 장애인 평생학습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1년에 4번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장애유형별 평생학습 사업 진행, 장애당사자의 역량강화, 가족의 기능강화, 장애공감교육(장애이해교육) 확대 등 장애인평생학습센터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함께 고



민해 나갈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평생학습원이 내년에 새로운 보금자리인 철망산 평생학습원으로 이전한다. 또한 내년 3월 9일 평생학습도시 선언 21주년을 기념해 광명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선언문을 전격 발표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전국 최초 평생학습도시 1호, 광명 2.0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 시 직영으로 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만들어 장애인 평생학습에 앞장서고 있으며 새로 지은 철망산 평생학습원에 장애인 전용공간을 마련해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광명/김영선·박종철 기자

여행작가에게 배운 포천시민기자

포천시 제4기 시민기자단이 최근 여행작가로부터 여행기사 작성 방법을 배웠다고 26일 밝혔다.

포천시는 이날 포천시립중앙도서관 독서토론회에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취재하고 시정 소식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는 제4기 시민기자단 송년 워크숍을 개최했다.

'포천 시민기자에게만 들려주는 여행기사 쓰는 노하우 7가지'라는 주제로 매력 있는 여행기사를 작성하기 위한 기획에서부터 섭외, 취재, 인터뷰, 사진 촬영까지 다양한 노하우를 시민기자단이 습득할 기회였다.

이날 워크숍에 참여한 시민기자 함영미 씨는 "포천의 다양한 여행지를 소개해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고 찾아오게 하고 싶었는데, 오늘 특강을 통해 구체적인 팁을 얻게 되어 좋았다"며 시민기자 활동에 열의를 보였다.

서정아 홍보전산과장은 "포천시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시민기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김영근 기자

파주시, 제2019-10회 도시계획위원회·워크숍

심의 등 토지이용계획 효율적 활용 구획 정형화 검토위해 조건부 수용

파주시는 최근 LH 파주사업본부에서 '제2019-10회 도시계획위원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사는 1, 2부로 진행됐으며 1부에는 제2019-10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심의안건 '2030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심의 및 자문'에 대해 토지이용계획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획의 정형화를 검토하도록 조건부 수용됐다.

2부 워크숍에는 토지이용, 주택건축, 교통, 환경, 방재, 경관, 군사 7개 분야 전문위원과 인허가 부서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위원 내부 방재전문가인 백충현 위원의 '타 지

방자치단체 도시개발사례', 장석환 위원의 '남북공유하천 영향 및 상생방안에 관한 특강', 신정하 파주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방법 및 정령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인허가 부서 담당자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간 간담회를 개최해 급증하는 개발압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입장 및 견해 차이를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송종완 파주시 도시균형발전국장은 "도시계획위원회와 인허가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간담회, 토론을 통해 균형 있고 내실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실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인허가 부서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개최해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성태 기자

횡단보도 안전보행 3원칙

서다 보다 건다

꼭 기억하세요!

서다 신호를 기다릴 땐 **한발 뒤로 물러섭니다**

보다 신호가 바뀌면 **좌우를 살펴봅니다**

건다 횡단보도는 뛰지 않고 **천천히 건넵니다**

안전보행 3원칙
서다 보다 건다 캠페인

도로교통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주)대정' 우수기업 대상

'영주를 Young하게 만들자' 대상 선정



바른유병원 등 6개 기업 수상, 292개 일자리 창출 일자리창출 성과 따라 근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경북도는 최근 도청 접견실에서 '2019 경북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대상' 시상식을 갖고 일자리창출 우수 6개 기업에 표창패를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에 ㈜대정, 최우수상은 바른유병원, ㈜제이엔티솔루션이, 우수상에는 ㈜만능, 농업회사법인(주)상복명과원, ㈜미정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 일자리창출 우수 6개 기업은 올해 신규로 292명을 채용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대상은 올

해에 신규고용과 전년도 고용유지 실적을 인정받아 선정된 도내 우수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일자리창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시·군 추천과 선정심의를 거쳐 신규고용인원,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 고용유지율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수상기업은 2020년도 일자리창출 실적을 평가하여 추가로 근로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에 수상한 ㈜대정은 국내 최

대의 편의점 전용 식품 제조회사로 지난해 3월 설립 후 올해 신규로 167명을 채용했고, 현재 225명이 근무하고 있다. 신생기업이지만 과감한 투자와 고용으로 경북의 일자리창출을 선도하고 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른유병원은 척추·관절 전문병원으로 올해 채용된 인원중 67명이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87%의 고용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제이엔티솔루션은 전자부품 제조 기업으로 올해 신규채용 14명, 전년 대비 59% 고용증가율을 보였으며 매년 고용창출 10% 이상 실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수상을 받은 ㈜만능은 실내인테리어 가구 제조 기업으로 근로자

수가 작년 9명에서 올해 15명으로 67%의 고용증가 실적을 보였으며, ㈜상복명과원은 경주빵을 생산하는 회사로 21명을 신규 채용했고 기업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미정은 떡·면·소스류 제조기업으로 올해 15명의 신규 채용 실적을 냈다. 경북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전년도 고용수준을 유지하면서, 신규고용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직원 휴게실, 기숙사, 구내식당, 개·보수 등 근로환경개선 사업비를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 시에도 우대를 받게 된다. 특히, 내년에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소규모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완화 할 계획이다. 이날, 대상에 수상한 ㈜대정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을 품고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기업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우수인재를 더 많이 채용하라는 뜻으로 새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업경영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지역경제에는 큰 힘인데, 일자리창출에 노력을 더해 주어 더욱 감사할 따름"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경북을 위해 운동화 끈을 더욱 조여 맬 것이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신년 아래 기업지원책을 마련하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영주시 공무원 정책동아리 6개 동아리 연구성과 발표

영주시가 공무원 정책동아리의 올 한 해 성과물을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시는 최근 시청 강당에서 영주시청 공무원 정책동아리 '소백힐링 연구회'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관광객을 영주로 오게 하는 방법, 영주에 머무르게 하는 방법, 남 다른 영주가 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한 Y영주팀 '영주를 Young하게 만들자'라는 주제로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영주/정승초 기자

최우수상을 리메이크 서천면, 자꾸만 찾게 되는 서천 로드맵을 연구한 '자진모리팀'이, 우수상은 영주 음식관광과 콘텐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을 연구한 '힐링스캐치팀' 각각 수상했다. 소백힐링 연구회는 직원들의 정책 제안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장의 각 분야에 접목시키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총 6개 분야(지역경제, 문화관광, 힐링복지, 행정효율, 정책발굴, 사회복지) 54명으로 구성해 운영해왔다. 시는 단기적인 혁신성과도 중요하지만 학습동아리를 통해 공무원 스스로 공부하고 지식을 함께 나누는 학습동아리를 통해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정책발굴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영주/정승초 기자

봉화군, 분천산타마을 트레킹 대회 성황리 개최



강따라산 따라 철길 따라 1천여명 낙동강 세평 하늘길 낭만에 빠져 들어

봉화군은 최근 석포면과 소천면에 이어져 있는 낙동강 세평하늘길에서 트레킹 대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트레킹 대회에는 약 1,000여 명의 트레킹 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봉화군이 자랑하는 힐링 트레킹로를 걸으며 겨울철 낭만에 빠져들었다. 특히,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인 신수지 선수와 함께 걷는 낙동강 세평하늘길 트레킹과 이어지는 생존매듭 팔찌제작 체험, 버스킹 공연 등은 트레킹을 즐기기 위해 찾아온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트레킹 대회에 이어지는 분천 한겨울 산타마을 개장식에서는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참석해 한겨울 산타마을 개장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이어서 산타 썰매 및 알파카 먹이체험, 산타캐릭터 포토존, 15초 동영상 등의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가지며 저물어가는 기해년을 아쉬워하며 다가오는 경사년에 대한 기대를 품었다. 임태항 봉화군수는 "강따라, 산따라, 철길따라 걷는 봉화군이 자랑하는 힐링 트레킹로를 방문해주신 관광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봉화/정승초 기자

경주시, 내년 농기계 임대료 변경

경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임대사업이 농가의 영농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임대료가 다소 변경된다고 26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업기계 임대료의 전국 각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임대농기계 가격의 최소 1일 임대료 기준'을 마련해 지난 6월 25일 「농기계화축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그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농기계 구입가격 구간을 종전 5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단서조항을 두어 지역실정에 따라 ±15%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경주시 농기계임대료는 '구입 가격의 0.24~0.5%' 수준인데, 법령 기준은 '구입가격의 0.42~1%' 정도의 수준으로 인상되며,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기준에서 정한 농기계 임대요금표에서 법령의 단서조항을 적용, 15%이내의 범위로 임대료를 삭감해 정하고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한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http://agriculture.gyeongju.go.kr) 경주/정승초 기자

'맛있는 참 소주' 활용 '대구·경북 관광의 해' 홍보

성공적 추진, 봄 조성 위한 업무협약 보조라벨 활용, 엠블럼 표기 제작·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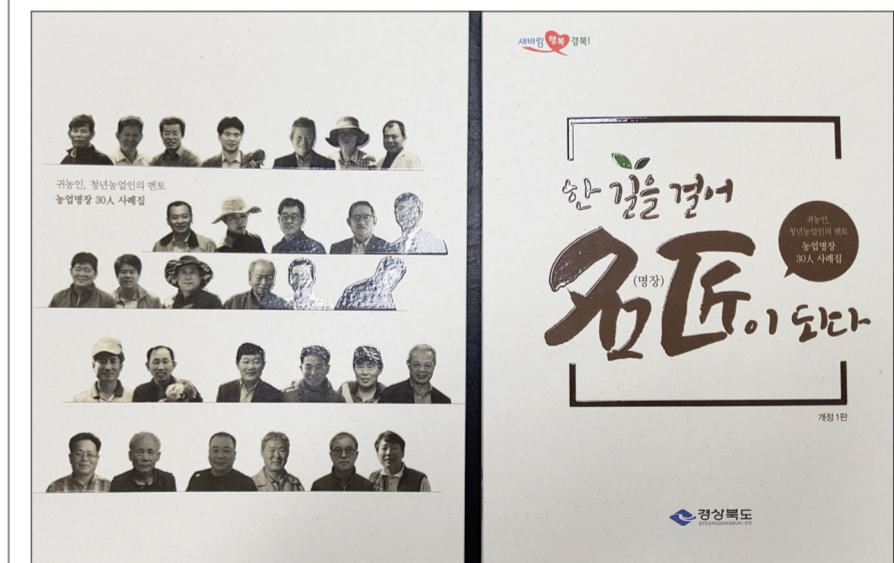
대구시와 경북도는 24일 대구시청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주류회사 ㈜금복주와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금복주의 상품브랜드를 활용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에 대한 시민들의 관광유도와 유기적 협력을 추진할 것을 협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호섭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부섭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원철 ㈜금복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협약내용으로는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봄 조성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금복주의 대표 브랜드 '맛있는 참' 라벨에 '대구·경북 관광의 해' 홍보내용을 삽입해 연간 20만병을 상반기·하반기 2회에 나누어 제작되어 지역업소에 출고 될 예정이다. '맛있는 참'을 통해 홍보하는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공동 사업을 통해 글로벌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대구·경북으로 유치하는 상생관광 사업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올 한해 해외 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관광설명회 추진, 대구·경북 투어페스타 개최, 태국 지상과 프로그램 공동 유치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해왔다. 내년도에는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원년해로서 대구·경북 대표상품 운영, 해외시장 공동마케팅, 시·도민 축제포함하여 시행, 내고향 먼저 알기 운동 등 대구·경북 관광의 해의 성

공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마케팅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김부섭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과 김호섭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향한 분위기가 간절한 가운데 이번 업무협약은 시·도민들의 봄 조성과 동참 열기를 끌어 올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대구·경북의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경북도, '한 길을 걸어 명장이 되다' 사례집 발간



농업명장 30인 우수사례 등 전파해 귀농·청년농업인 참고서로 활용

경북도는 2002년부터 매년 농업분야 품목별 최고권위자인 '경북도 농업명장'을 선정해 왔다. 지금까지 선발된 명장들의 축적된 노하우와 그들의 농업철학을 담은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 '한 길을 걸어 명장이 되다'는 30인의 사례를 묶은 책으로, 명장이 가진 농업기술과 노하우를 소개함으로써 귀농인, 청년농업인 등 초보 농업인들의 지침서, 참고서로 활용할 계획이다. 책자에는 흔히 접할 수 있는 사과, 딸기, 참이는 물론 쉽게 접할 수 없는 산양삼, 토종별, 누에 등 20여개의 품목이 실려 있으며 품

목마다 명장 한명 한명의 글자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작목의 시작부터 도전, 실패경험, 현재 성공 단계까지의 내용이 현실감 있게 표현되어 있다. 또한, 경북농업명장은 누구나 농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되고 있는 농업명장 현장실습 교육에도 농장을 개방하여 귀농인, 청년농업인들에게 생생한 현장농업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의 기술이 경쟁력인 시대에 품목별 최고 경지에 이른 농업명장들의 기술력과 인생철학이 담긴 이 책자가 널리 읽혀 농업현장에 변화와 혁신의 새바람이 불기를 기원 한다"고 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시민이 뽑은 2019 영천시정 우수 베스트 7

가장 공감하고 우수한 시책 선정 버스승강장 시설 개선, 가장 많아

영천시는 최근 2019년 한 해 동안 시민들이 가장 공감하고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시책 '베스트 7'의 결과를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2019 영천시정 베스트 7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간, 시 홈페이지와 시청 로비, 영천역, 경로당 등은, 오프라인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17개 시책에 2만6,773표가 나왔다. 시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시책은 버스승강장 시설개선이었다. 최기문 시장은 취임 후 승강장에 에어커튼, 온돌의자, 바람막이 등을 설치,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승강장 환경을 크게 개선한 점이 이번 결과로 이어졌다. 2위는 영천-대구-경산 간 광역교통 무료환승이 선정되었다. 지난 8월 13일 대구, 경산과 버스, 지하철 광역교통 무료 환승 실시 후 버스 이

용객이 부쩍 늘었고, 특히 신년, 청통 구간 추가요금이 폐지되어 교통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듯,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확대 및 운영과 함께, 전체 순위 9위에 머물렀던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시내권은 신혼부부를 위한 '분만산부인과', 학부모들을 위한 '초·중·고 무상급식 시행', 젊은층, 중년층 국외여행자들을 위한 '인천공항 직통버스', 그리고 전체 순위 15위에 머물렀던 '오미동 상업문화복합시설'에 평가가 좋았다는 점을 볼 때, 거주지역과 연령, 관심분야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결과를 잘 분석해, 2020년에도 시민들이 더욱 만족하고 피부로 느끼는 행정에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영천/정승초 기자

경북도, 직매장 지원 국비 18억 원 확보

지역 내 우선 소비하는 직거래 공간 5개소 선정, 신선한 농산물 공유 확산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0년 직매장 지원사업'에 5개소가 선정되어 2년간 국비 18억 원(총사업비 6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중·소농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그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직거래 공간으로 생산자는 재고 받고 판매하고, 소비자들은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할 수 있다. 농가 레스토랑, 공유부엌 등 문화·생활 시설을 갖춘 복합 직매장은 단순한 판매기능 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 활용을 통한 로컬푸드 식문화 공유·확산의 중요한 거점 역할도 한다. 선정절차는 사업부지 확보, 임지조건 등 서면심사, 현장실사와 최종발표평가로 진행되며, 전국 21개소(경북 5, 경기 1, 강원 1, 충북 1, 충남 2, 전북 3, 전남7, 경남 1)를 선정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이중 경북은 경주시 경주농협(5억 원), 내남농협(2억 원), 천북농협(3억 원), 구미시(5억 원), 영덕군(3억 원) 5개소가 선정되어 2년간 국비 18억 원을 지원받는다. 1년차 사업자인 내남농협, 천북농협은 직매장 100㎡ 이상 설치 및 내·외부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며 2년차 사업자인 경주농협, 구미시, 영덕군은 1년차에는 설계 등을 실시하고 2년차에 직매장, 농가레스토랑, 키즈카페 등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축공사를 진행한다. 한편, 경북도는 '19년 직매장 지원 공모사업에 3개소가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다. 김중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지역단위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를 확대하여 취약농들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경남도 '사전 컨설팅감사'로 투자유발·일자리창출 등 성과

1,952억 투자유발, 964명 일자리창출, 50억 예산절감 적극행정 유도해 기업체 애로 해결... 행정서비스 제공

경남도는 26일 2019년 한 해 동안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운영한 결과 1,952억 원의 투자유발효과와 964명 일자리창출, 그리고 50억 원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들이 불확실한 법령이나 규정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한 컨설팅감사 의견을 제시해 그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를 면제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올해 49건

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건을 처리하면서 도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기업체 애로사항 해소에도 적극 노력해 도민들로부터 호응이 높았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A 산업단지 공사가 완료되었는데도 하자보수보증증권을 발급받지 못해 준공검사가 지연되자 산업단지 부지를 계약하고도 입주자를 확보하지 못한 11개 기업을 입주가능토록 조치해 1,280억 원의 투자유발효과와 425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우수가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여 71억 원의 예산을 신속 집행했다.

특히 공장증축 불가로 늘어나는 수출물량을 생산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항공부품 생산업체의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한 사례는 연간 80억 원의 기업매출 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지난 10월에 개최한 '경남도 혁신 우수사례 및 적극행정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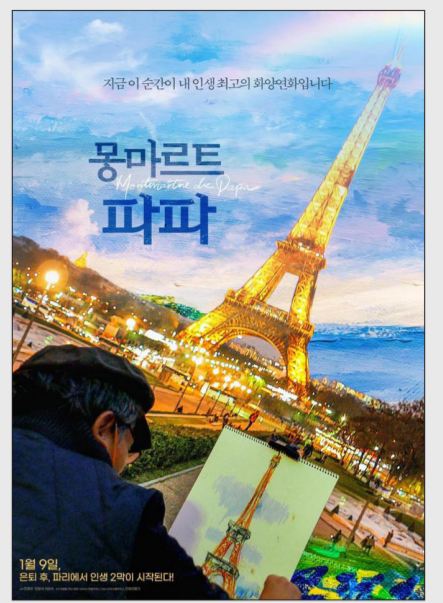
진대회'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2019년 행정안전부 사전 컨설팅감사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돼 내년 1월 16일 개최하는 '중앙-지방 감사협력 포럼'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올 한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1,952억 원의 투자유발효과와 964명 일자리창출, 그리고 50억 원 예산을 절감시키는 성과를 거두며 실제 기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면서 "내년부터는 일반 도민들에게도 컨설팅감사 신청의 기회를 제공해 행정실수요자인 도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최만식 기자

부산시립미술관 '비엠에이(BMA) 송년 콘서트'

미술 재즈음악아트 스토리텔링 형식 미술작품 재즈연주로 풀어 재미 제공



부산시립미술관은 27일 오후 4시부터 1층 로비에서 '비엠에이(BMA) 송년 콘서트'로 재즈 아트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김정곤 재즈 그룹이 미술과 재즈, 아트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재즈아트 토크보레이션'을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평소 접하지 못했던 장르복합적 공연과 함께 2019년 마지막 주말을 특별하게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김정곤재즈그룹은 지난해 10월에도 부산시립미술관에서 한 차례 공연을 가져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공연에서도 김정곤 교수가 전채 아티스트들을 위해 만든 자작곡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가족을 그리워하며 그 추억과 사랑을 예술로 남긴 천재 화가 이중섭의 예술세계를 그리는 '또... 하늘 또...바닷가'와 미래를 살다간 미디어아티스트 백남준의 삶과 사랑을 표현한 '지니어스 랩소디(Genius Rhapsody)' 그리고 과거와 현재, 삶과 죽음, 사물에 숨겨진 인간의 기억들의 관계를 탐구하는 설치미술가 시오타치하루의 작품을 위한 '송 포 마이 라스트 모먼트(Song for My Last Moment)'를 연주한다. 이 외에도 겨울, 연말을 노래하는 명곡들을

재즈로 감상할 수 있다.

콘서트가 진행되는 27일은 올해 마지막 '문화토크데이'이기도 하다.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인 문화토크데이에는 부산시립미술관 본관과 이우환 공간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는 정년 퇴직한 아버지가 자신의 꿈이었던 몽마르트 거리 화가가 되기 위해 프랑스로 떠나 화가가 된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몽마르트 파파'도 무료로 상영된다.

시립미술관 관계자는 "많은 시민분들께서 무료로 개최되는 이번 콘서트에 참여하시어 올해 마지막 주말을 미술관 콘서트와 함께 풍성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최만식 기자

부산시, 수산자원 회복 위해 총사업비 10억 원 확보



건강한 수산종자방류로 연안자원 증강 올해 1,685만여 마리 수산종자 방류해

부산시는 급감하는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수역 특성에 적합한 건강한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 총 1,685만여 마리의 수산종자를 부산 앞바다에 방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구온난화 등 해양환경 변화 및 무분별한 남획으로 고갈되어가는 부산 연안의 자원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올해 총사업비 9억 원(국비 7.2억 원, 지방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전복·해삼·말쥐치·붉은송쟁이 등 9개의 고부가가치 수산종자를 방류한 데 이어 2020년에는 총사업비 10억

원(지방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자원조성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0년부터는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추진에 따라 수산종자관리 사업비를 전액 지자체 재원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올해보다 1억 원을 증액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수산자원 회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종자관리사업은 △직접적으로 수산자원을 증강시키는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고부가가치의 우량품종 수산종자 연구·개발 △방류한 품종의 경제성 및 효과조사를 위한 방류효과조사사업 등이 있다.

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외에 강서구 명지

우량품종을 연구·개발하고 있는데 올해 자체 생산한 돌돔·감성돔·동남참게·넙치 등 12개 품종 1,505만여 마리를 부산 연안 해역에 무상으로 방류했으며 2020년에도 우수한 품종의 종자 생산·방류를 계획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는 수산자원 증강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류사업 계획 수립(품종별·지역별 순환 및 재포획률 산정)을 위한 경제성 분석 등)과 꾸준한 예산(2020년 1억 원) 확보를 통한 수산종자방류효과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부산바다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최만식 기자

김해시, 가족 한마당 행사

김해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최근 롯데시네마 부원점에서 '사랑가득 행복가득'이라는 주제로 '2019년 가족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센터 이용 가족과 자원봉사자 등 24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며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2019년 센터 사업 영상을 보며 지난 한해의 성과를 공유하고 헌신적인 사회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 영화관람, 가족미션활동 등 다채로운 행사를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센터 프로그램 이용자에서 출발해 가족봉사단과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으로 이어가며 건강하고 밝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자원봉사자들과 취업 부모들의 양육 부담 경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아이 돌봄 교사들이 함께 어울려 한해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가족은 "올 한해 센터에서 진행된 부모교육을 통해 아이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장수한 센터장은 "우리 센터는 맞벌이,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 기능을 보완하고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족돌봄·상담·교육·문화지원, 취약위기가족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모든 센터 가족들을 격려하고 소속감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해/최만식 기자

경남도사회서비스원, 김해시중흥어린이집 개원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운영 1호 개원식 '아이중심, 스마트보육, 더불어 돌봄'

경남도사회서비스원이 김해시중흥어린이집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남도사회서비스원은 지난 6월 김해시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공모에 참여해 중흥에스클래스에요 시티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진영읍 소재)을 수탁받아 6개월 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다.

이날 개원식은 경남도의원, 경남도 복지정책과장, 김해시의회의장을 포함한 내빈과 임소를 희망하는 영유아와 보호자, 임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리틀싱어즈의 식전행사 공연을 시작으로 개원식, 축사, 운영계획보고, 테이프커팅 순서로 진행됐다.

이성기 경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아이 중심, 스마트보육, 더불어 돌봄"이라는 미션 아래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영유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의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어린이를 키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경남도사회서비스원은 대체 인력지원 및 행정지원 등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 있는 운영을 수행할 예정이다.

'경남도사회서비스원'은 이용자 중심의 어르신 돌봄, 영유아 보육, 종합재가서비스와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남도가 설립한 경남도 산하 재단법인으로, 지난 6월 개원 이후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공립요양원 1개소, 종합재가센터 2개소, 커뮤니티케어센터 1개소 등 5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경남도/최만식 기자

장성군, 로컬푸드 직매장 공모사업 선정 '쾌거'



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매장의 시설부분을 지원한다.

장성군은 농협장성군로컬푸드 직매장의 농산물 판매면적을 기존 344㎡에서 570㎡로 확대하고 농가 레스토랑과 교육장 등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계획을 공모해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남면농협에서 운영 중인 농협장성군로컬푸드 직매장은 2017년 개장 첫해 10억 원, 이듬해 35억 원에 이어 올해 44억 원의 연매출을 달성하는 등 매년 매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도1호선·광주광역시와 가까워 접근성이 좋고 양질의 신선한 농산물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는 점이 매출신장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해당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300평 이상 건축이 불가능하다.

이에 장성군과 남면농협은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연접 필지에 직매장 지원시설을 신축 이설하고 기존 지원시설 공간을 활용해 로컬푸드 매장 면적을 65%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주민편의를 위해 기존의 공산품 판매장은 로컬푸드 전문매장으로 재단장해 유지하고 신축건물 2층에

는 농가 레스토랑과 교육장을 설치해 지역민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도 유도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먹거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역농협과 장성군이 오랫동안 함께 준비해온 푸드플랜의 결과물"이라며 "풍요로운 부자농촌 '엘로우시티 장성'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면농협 이춘섭 조합장은 "공모사업을 통해 농협장성군로컬푸드 직매장의 재도약을 도모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앞서 장성군은 올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반구축 공모사업'에서 농촌형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 주관한 '로컬푸드 안정공급 기반구축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용역을 12월 중 완성한다.

군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2020년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예정이다.

장성/오홍근 기자

농식품부 주관 공모사업, 군·지역농협 '협업' 성과내 판매면적 570㎡로 확대, 부대시설 신축... 12억 확보

장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직거래하는 매장

영암군, 한국트로트가요센터 발전 앞장

장기 비전 방향 제시 등 논의해 대중문화 선도할 관광명소 조성

영암군에서는 최근 한국트로트가요센터 공연장에서 전동평군수와 군의원, 가수 하준화, 대중가요 전문가, 군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트로트가요센터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장기비전 제시 대중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트로트 가요 산실로 각인시켜 새로운 관광명소 조성하고 군민의 관심 제고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중가요 전문가인 이준희 성공회대 교수와 사)상생나무 김종익박사, 김병오 전북대학교 교수, 김진목 음

악평론가, 이동창 목포MBC 콘텐츠 제작국장, 김광우 음악전문사이트 가요114 운영자 등이 대거 참석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트로트가요센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이며 앞으로 트로트 아카데미와 대공연장을 만들고 영암아리랑 가요제를 개최하는 등 교육과 공연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해 트로트 스타 양성기관과 자랑스런 전통가요인 트로트를 계승 발전시켜, 한국 대중음악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는 물론 트로트의 메카 영암의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이남출 기자

구례군, 지역균형발전 위한 상생 첫 발걸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리츠사업 MOU 귀농·귀촌 인구유치 기여 계기 마련

구례군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경남 진주시 소재) 이사회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협약을 통해 고령화와 은퇴세대 등 귀농·귀촌을 원하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게 맞춤형 농촌주택단지를 공급하여 이주자의 주거 부담 경감과 실질적인 인구유치를 실현하고 지역 균형발전 추진의 밑거름을 그려나가기로 뜻을 함께했다.

귀농·귀촌주택단지 리츠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 및 임대관리 운영하는 주택건설사업이다.

변종홍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이번 협력이 지역특성과 수요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귀농귀촌 모델 개발과 효과적인 사업추진 전략 도출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LH는 지역균형발전 선도기관으로서 새로운 활력과 일자리가 있는 농어촌을 만드는 데 구례군과 상생협력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첫 발걸음을 귀농·귀촌 수요자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는 청정지역 구례군과 갖게 된 것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귀농·귀촌주택단지 리츠사업이 소멸되어가는 우리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귀농·귀촌 인구 유치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이남출 기자

2019 화순군 청소년 겨울 스키캠프 운영

화순군청소년문화의집은 최근 무주 덕유산 리조트 스키장에서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2019 화순군 청소년 겨울 스키캠프'를 운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스키캠프는 일상 수업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스키를 체험하며 청소년들의 체력 단련을 통한 호연지기와 협동심을 기르고 자존감 형성을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다. 전문 강사를 통해 스키 장비, 규칙, 안전사고 등 교육을 받고 학생들의 수준별로 강습 난이도를 달리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

캠프에 참가한 한 학생은 "친구들과 스키를 타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신나는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순/김영만 기자

담양군,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워크숍

담양군은 최근 담양에코센터에서 12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복지인정망, 담당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마을복지계획 수립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글로벌액션리닝을 박승희, 김부길 강사의 진행으로, 지역의 복지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

는 복지인정망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복지계획을 수립해 지역복지문제를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서원주민행복과장은 "지역 맞춤형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담양/오홍근 기자

여수시, 전남권역 재활병원 사업 '본격화' 추진

2020년 11월 착공, 2022년 11월 준공 전체면적 13,650㎡ 지하 1층, 지상 5층

여수시가 전남권역 재활병원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남권역 재활병원은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부지에 전체면적 13,650㎡, 지하 1층, 지상 5층, 150 병동 규모로 지어진다.

총사업비는 458억 원이며, 전남대학교는 30억 상당의 부지를 무상 제공한다. 올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같은 해 11월 공사에 들어가 2022년 11월 완공할 예정이다.

재활병원은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위탁 운영하며, 척수순상·뇌순상·근골격계·소아 재활을 전문으로 한다.

내과, 치과 등 진료 과목을 점차 늘려 시민에게 대도시 못지않은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



전남권역 재활병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행정 절차와 국·도비 확보 등에 힘썼다. 2018년 민선7기 들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고, 수준 높은 의료장비와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비를 270억 원에서 458억 원으로 늘렸다. 2019년에는 실시설계비 30억 원

을 확보했고, 건축설계공모를 통해 재활병원의 청사진도 그렸다.

시 관계자는 "재활병원의 건립과 운영은 단순한 수익 사업이 아닌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재활병원이 문을 열면 그동안 낙후됐던 지역 의료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이남출 기자

구례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개소



도내 3호, 통합민원실 군청내 설치 국세와 지방세 민원업무 동시 처리

구례군은 최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개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도내 3번째로 개설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은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례군청 신청사 1층 민원실 옆에 설치하였다.

그간 구례군 관내에 세무서가 없어서 37km나 떨어진 순천세무서까지 다녀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이번에 설치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은 국세와 지방세 민원업무 동시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 직원 1명과 구례군청 세무직

원 1명이 함께 근무한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개소로 사업자신청, 등록 및 정정은 물론, 휴폐업신고, 국세증명발급, 참가입대확정일자 관련 민원 등 국세민원과 지방소득세 관련 지방세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민원인들이 만족하는 원스톱 세무행정 서비스를 체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소 후 3주 동안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공식적인 업무처리는 오는 2020년 1월 15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은 마을세무사를 활용한 세무 상담 등 세무행정 만족도를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례/이남출 기자

보성군, 새해맞이 대규모 불꽃축제 펼친다

31일 한화와 울포솔밭해수욕장서 카운트다운과 동시에 불꽃쇼 선포

보성군은 오는 31일 울포솔밭해수욕장 일원에서 한화그룹과 손을 잡고 대규모 불꽃축제를 개최한다. '보성 울포해변 불꽃축제'는 31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되며 오후 8시 '라디오 불꽃쇼', 20시 50분 '군민 사연 공모 불꽃쇼', 오후 9시 30분 '김도원의 추억찾기' KBC 라디오 공개방송, 오후 11시 30분 '2020 보성 블루이코노미 선포 세리머니 불꽃쇼', 오전 12시 '2020 새해맞이 불꽃쇼' 등 총 4번의 불꽃쇼가 진행된다.

이번 보성 불꽃축제는 음악, 사연, 불꽃, 공연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퍼포먼스로 진행되며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펼쳐지는 전국 최초의 불꽃쇼다.

특히 이번 축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인 12월 31일 보성차밭 빛축제와 관람하고 희망의 빛인 불꽃을 보면서 한 해의 소망을 기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더불어 화려한 불거리와 다양한 즐길거리까지 함께하며 연말연시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꽃축제에 이어 새해 아침 7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해맞이 행사



가 펼쳐진다. 경자년 신년 휘호 퍼포먼스와 함께 새해 불꽃쇼, 떡국 나눔 등 떠오르는 새해와 함께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돼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불꽃계의 거물 한화그룹과 함께 준비하는 축제인 만큼 보성 울포해변 불꽃축제를 대한민국 3대 불꽃축제로 키워가겠다"며 "화려한 불꽃과 떠오르는 새해를 볼 수 있는 빛의 도시 보성에서 잊지 못할 새해의 첫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영만 기자

순천시, 천만그루 나무심기 원년 목표 달성

생활속 생태문화실천 위해 추진 올해 목표 대비 131% 초과 달성

순천시는 숲과 나무로 사람이 숨쉬기 좋은 순천을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올해 목표인 110만주의 131%인 145만여 주가 식재됐다고 26일 밝혔다. '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은 2019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8년간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미세먼지, 폭염, 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심 녹지축과 녹지공간을 확대해 생활속 생태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순천시에서는 기존 행정주도의 나무심기를 탈피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식재하도록 노력한 결과 올해 전

체 145만주 중 약 35만주가 시민들의 손으로 식재됐으며 점차적으로 인간의 식재를 매년 30%이상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순천시는 '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기틀 마련을 위해 시민운동본부 발대식, 나무심기 지원 조례 제정, 시민 아이디어 및 슬로건 공모, 시민 원탁토론회의 개최등 한 해 동안 다양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0년에는 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운동본부 운영위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인 및 단체 반려나무 갖기 운동, 릴레이 나무심기 등 시민 나무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식재된 나무에 대해 반려나무 DB구축, 거름주기, 풀베기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순천/이남출 기자

여주시, 전남 동부권 최대 규모 '이순신도서관 오늘 개관'



'이순신 라키비움' '상상 창작소' '디지털 아쿠아리움' 등 구성 4차 산업혁명 기술 집약된 최신팩 도서관... 본격 운영 들어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집약된 최신팩 도서관이 전남 여주시 웅천지구(웅천동 1820-2)에 문을 연다. 27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는 '여주시 이순신도서관'이다. 전남 동부권 최대 규모인 이 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전체면적 5,622㎡를 자랑한다. 국비 포함 총 사업비 198억9,000만 원을 들여 지난 2018년부터 약 2년간 공사를 진행했다. 도서관 명칭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가 곳곳에 남아있는 호국

충절의 도시 여수를 표현하고 있다. 1층에는 도서관(library)과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의 기능을 합친 '이순신 라키비움'(larchiveum)이 자리 잡고 있다. 라키비움에는 난중일기 번역본이 전시돼 있고, 화면을 보며 거북선을 조종하는 시설도 마련돼 있다. 대형스크린에서 난중일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도 있다. 올림동 전남체육공원에 있던 평생학습관도 이곳으로 옮겨 시민 편의와 교육 효과를 꾀했고, 식당과 강당도 마련했다. 2층에는 코딩로봇과 3D프린터를 경험할 수 있는 '상상 창작소'와 55인치 멀티디스플레이로 다양한 해양생물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디지털 아쿠아리움'이 위치해 있다. 3층에서는 일반 자료실과 이순신 장군 관련 자료를 한데 모아놓은 '이순신아카이브'를 만날 수 있고, 4층은 학습실과 그룹 토의실, 사무실 등으로 채워진다. 이밖에도 차 안에서 도서를 만날 수 있는 '북 드라이브 스투'와 보관 도서의 위치와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장서점검 로봇'을 도입해 편

의성을 높였다. 도서관 운영시간은 학습실의 경우 평일과 주말 동일하게 오전 7시 30분~저녁 10시이다. 일반자료실은 평일 오전 9시~저녁 10시, 주말 오전 9시~오후 5시이고, 어린이자료실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 오전 9시~오후 5시이다. 휴관일은 매월 첫 번째 금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이다. 학습실은 이달 23일부터 이용가능하고, 자료실은 내년 1월 2일 개방할 예정이다. 개관식은 27일 오전 10시 이순신 도서관 앞마당에서 여주시장과 지역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쇼,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커팅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편리한 시설과 다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이순신 도서관을 여주의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이다"면서 "많은 시민의 애정 어린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여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yslib.yeosu.go.kr)를 참고하거나, 전화(☎659-2850)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이남출 기자

장흥군 해양수산물, 내년 시책발굴 워크숍



총 31개의 신규시책 발굴 보고 직원 소통·화합의 시간도 가져

장흥군은 최근 우드랜드 강의실에서 '해양수산물 2020 시책발굴 및 직원 간 소통·화합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열린 워크숍에는 해양수산물 전직원 26명이 모여 지역 해양수산물 과제 발굴을 위한 신규시책 발표와 토론회가 진행됐다. 워크숍에서는 총 31개의 신규시책을 발굴 보고됐다. 신규시책은 장흥의 지속가능 미래발전을 위한 도전과제 19건, 관

행을 타파하고, 규제개혁을 위한 혁신과제 3건, 유관기관 또는 군청내 부서 간 협업과제 3건, 전남도 블루이코노미 대응 과제 6건이다. 이날 발표한 시책은 다시 내부토론과 보완을 거쳐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규시책 발굴 토론회를 마치고 해양수산물 직원 소통·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해양수산물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해양수산물 분야 업무담당자들의 목표의식을 고취하고 해양수산물 분야 정책들이 좀 더 현장에 적절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정길 기자

김병조·이이화, 전주 사람으로 전주시 명예시민 됐다

전주동학농민혁명의 송고한 정신 계승 발전 위한 헌신 공로 '인정'

30년 간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전담사회자로 활약해온 방송인 김병조 씨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해온 역사학자인 이이화 씨가 전주시 명예시민이 됐다. 전주시는 23일 방송인 김병조 씨와 이이화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위원장에게 전주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먼저 137번째 전주시 명예시민이 된 방송인 김병조 씨는 지난 1989년 제15회부터 올해 제45회까지 30년간 꾸준히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의 전담 사회자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주대사습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왔다. 그는 또 대한민국 1세대 개그맨으로서의 인지도를 활용해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악대회로 성장하는데 헌신해왔으며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의 강사로 참여해 전주시민들과 소통하기도 했다. 이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이화 이사장이 138번째 전주시 명예시민이 됐다. 이 이사장은 한국사를 대중화한 역사학자이자 동학 전문가로 전주성 점령과 전주화약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전주시민 못 지 않은 두 분의 노력에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전주가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활발한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전주/김승일 기자

영암군, 노인대학 수료식 성료



영암군은 최근 영암읍을 시작으로 삼호읍까지 영암군 11개 읍면 복지회관을 찾아가며 노인대학 수료식을 성대하게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찾아가는 노인대학은 올해 3월에 영암군 65세이상 1,750명을 대상으로 입학식을 치렀으며 교양, 건강, 상식, 음악교실 등 총 99회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어르신들께 호평을 받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노인대학은 읍면으로 직접 찾아가서 많은 교육생을 만나고 지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열린 교육의 장으로서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평생교육에 걸맞은 알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영암/이남출 기자

구례군, 지역발전혁신협의회 통합워크숍

군정발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렴 천은사 입장료 문제해결 등 소통

구례군은 최근 2019년도 군정성과를 점검하고 2020년 군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발전혁신협의회 제2차 군읍면 통합워크숍을 구례자연드림파크 ICA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군, 읍면 지역발전혁신협의회 위원 130여 명이 참석하여 2019년 군정성과 및 2020년 주요사업계획 보고, 구례자연드림파크 조성 개요 및 현황 설명을 듣고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19년 군정 주요 키워드를 소통에 맞춘 구례군은 천은사 입장료 문제해결, 지역발전혁신협의회와 구례교육공동체가 출범하였으며, 도 시제생 및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 선정 등 대규모 사업들이 확정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게 되었다. SNS를 활용한 대외 이미지 홍보

를 강화하여 대한민국 SNS 대상 수상과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하는 등 지난 1년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구례군 지역발전혁신협의회는 군과 지역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며 각종 정책에 대해 의견 제시와 자문 역할을 했으며 농지 내 철쭉재배 문제 공론화, 지리산남악제 분리개최 결정 등 성과를 보여 왔다. 금년 통합워크숍에서는 구례군 지역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구례자연드림파크와 구례군이 상생발전하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순호 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와 자문을 통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구례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가오는 2020년에는 군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난해 주요성과를 바탕으로 민선7기의 대규모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자연이 살아숨쉬는 생명의 도시 구례로 도약하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례/이남출 기자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농어촌

KF 한국농어촌공사

생명산업의 뿌리, 농어촌용수

물길이 생명길입니다

국토의 생명물길, 농어촌용수
건강한 물순환을 변함없이 지켜가겠습니다

국토의 물길을 관리하는 것은 인체의 혈관처럼 생명을 주관하는 가치있는 일입니다.
미래세대에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농어촌을 물려주는 일, 한국농어촌공사가 함께 합니다.

용인, 주민종교 단체서 성금 성품 기탁 이어져

홀로어르신·복지사각지대 농인 이웃 물품 전달 저소득 가정 아동에 전해달라며 생필품도 지원



경기 용인시는 26일 수지구 말씀의교회회를 비롯해 다양한 주민·종교 단체에서 이웃돕기 성금과 성품을 기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말씀의교회 담임목사 등 2명은 구를 찾아 홀로어르신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생필품 35박스를 기탁했다.

이 선물은 쌀·내복·젓갈 등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물품으로 구성됐다.

수지구 상현1동에선 이날 벽산블루밍아파트 주민들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써달라

며 성금 60만 원을 기탁했다.

이형남 입주자 대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주민들이 작은 정성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각 지역 주민단체들의 기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처인구 양지면에선 지난 18일 주민자치위원 16명이 십시일반 모은 200만 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6개 단체가 140만 원을, 면정자문위원회가 50만 원을, 양지면테니스클럽에서 10kg짜리 쌀 20포를 기탁했다.

또 12일엔 아시아토목중기에서 성

금 100만 원을, 10일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직접 수확한 쌀 20kg 짜리 43포를 기탁했다.

4일엔 양지면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4명이 이웃돕기 성금 40만 원을 기탁했다.

심종찬 반장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싶어 마련한 성금"이라고 말했다.

역삼동은 21일 역북동 한가람교회에서 성탄절을 맞아 저소득 가정 아동에 전해달라며 300만 원 어치의 생필품 100박스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동은 이 생필품을 관내 한부모가정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원삼면에선 20일 정진농장이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서정용 대표는 "해마다 '사랑의 열차'에 동참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림동은 지난 19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연휴양림에서 가진 워크숍 자리에서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 성금은 위원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 모은 것이다.

시는 기탁된 성금과 성품을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복지시설에 전달할 방침이다.

용인/남시현 기자

경남도-노조, 우수기관 시상금 기탁



경남도와 경남도청노조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인제 아동 양성을 위한 인제개발비로 200만 원을 기탁했다.

이 기탁금은 최근 경남도가 '2019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에 선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시상금 전액이다.

경남도와 노동조합은 올해 상반기에도 지역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어린이 약상자 만들기' 행사를 함께 진행하는 등 매년 다양하고 많은 사회봉사 활동을 노사가 함께 해오고 있다.

신동근 도청노조 위원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 사회에 기부 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며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받은 상금 전액을 기탁하기로 결정했다"며 "적지만 뜻깊은 금액이지만 큰 소중함에 사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도/최만식 기자

장성군 "손수 재배한 쌀 이웃 위해 기부"



농촌지도자, 사랑의 쌀 88포 전달 회원들 농업기술을 활용 재배한 백미

전남 장성군은 한국농촌지도자 장성군연합회에서 쌀 88포를 군에 기증했다고 26일 전했다.

이 쌀은 농업인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 회원들이 한 해 동안 최신 농업기술을 활용 재배한 백미다.

정길환 회장은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기부했다"며 "내년에도 팔팔하고 활기찬 한 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88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기증된 쌀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고르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인 기부 소식도 이어졌다.

장성군은 삼계면 수옥리 옥천마을 김병수 이장이 삼계면사무소를 찾아 백미 20포를 기부했다고 전했다.

김 이장은 이전부터 연말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본인이 재배한 쌀을 기부해왔다.

삼계면 관계자는 "매년 이맘때쯤 말없이 쌀을 놓고 가신다"며 "햇수로 10년 넘게 꾸준히 기부하시는 중"이라고 귀띔했다.

장성/오홍근 기자

담양군, 희망을 나누는 손길 이어져 '훈훈'

대한육건협회, 최승훈 대표 각 100만 원 추연철 대표, 올밀크 요거트 50상자 기탁

전남 담양군은 최근 대한육건협회 담양군지회(지회장 최상철), ㈜빵굽는사람들 최승훈 대표가 각각 100만 원의 성금을, 담양올밀크요거트 추연철 대표가 올밀크 요거트 50상자(2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육건협회 군지회는 2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연말연시마다 잊지 않고 지속

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빵굽는사람들 최승훈 제빵사는 3년 전 담양농협하나로마트 내에 입점하여 부부가 함께 빵집을 운영해 오고 있다.

담양올밀크는 담양에코산업단지 내 지난해 문을 연 유제품 제조업체로서 원유를 이용해 플레인 요거트와 구워먹는 치즈, 우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유등 온·오프라인 매체에 판매망을 구축하고 국내는 물론 글로벌 회사로 약진하고 있는 기업체다.

담양/오홍근 기자

(주)대풍EV자동차, 영광군에 1,200만 원 성금 쾌척



온정 담은 '희망 2020 나눔캠페인'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 실천

전남 영광군은 최근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투자기업인 (주)대풍EV자동차가 '희망 2020 나눔캠페인'을 통해 성금 1,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는 2020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성금 모금 활동에 맞춰 진행됐다.

(주)대풍EV자동차 백옥희 대표는 "연말연시를 맞이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관내에 따뜻한 온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더불어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역 소재 기업이 솔선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큰 힘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속적으로 민관이 함께 동참해 소외된 이웃이 없는 따뜻한 영광을 만들어 가자"며 각계각층의 참여를 부탁했다.

영광/김영만 기자

봉화군, 자율방범연합회와 사랑온정 나누

소외이웃 위한 사랑 연탄나누기 연탄 1,000장·쌀·라면 등 전달해

경북 봉화자율방범연합회에서는 최근 연말연시 소외 이웃을 위한 '사랑의 연탄나누기 운동'을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봉화자율방범연합회 회원 30여 명이 참여하여 겨울철 난방을 위한 연탄, 장애인 가정 등 주변에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 1,000장과 함께 쌀, 라면 등을 직접 전달했다.

봉화자율방범연합회는 해마다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랑의 연탄나누기 운동을 펼쳐 왔으며, 은어축제·술이축제 등 각종 행사 때 마다 방법과 치안유지를 위해 순찰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황문의 연합회장은 "대원들이 기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이 겨울을 따뜻하게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연탄을 전달했으며, 앞으로 지역의 방범활동 및 사회봉사 등을 통해 지역 곳곳에 다양한 분야에 나눔과 봉사활동이 지역사회에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봉화/정승조 기자



지역소식

파주, 복지사각지대 발굴 앞장



경기 파주시 금촌3동은 최근 연말을 맞아 동절기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거리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거리캠페인은 겨울철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굴하고 주민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금촌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장협의체 등 금촌3동의 기관단체 등 약 30여 명과 함께 진행됐다.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회원들이 직접 산타클로스가 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핫팩을 전달하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거리캠페인은 3개조로 나누어 이마트 파스프링점 및 인근 상가, 버스정류장을 돌며 전단지 및 홍보물품을 배부했으며 캠페인 실시 후에는 복지사각지대 어려운 이웃을 찾기 위해 직접 가정방문을 다니며

이웃들과 만났다.

이용재 금촌3동장은 "동절기에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때"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해 지원하고 앞으로도 거리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성태 기자

안산 삼성에프씨㈜, 후원품 기탁

경기 안산시는 최근 삼성에프씨(주)로부터 관내 저소득 아동에게 전달해 달라며 '사랑의 쌀' 10kg 100포와 과자선물세트 200개를 기탁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진행된 기탁식에는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해 윤영자 삼성에프씨(주) 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기부문화 확산과 동참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삼성에프씨(주)는 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 제조를 하는 중소기업으로 매년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윤영자 삼성에프씨(주) 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

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소외된 이웃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이승배 기자

양주, 동지팔죽 나눔으로 이웃사랑



경기 양주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이웃사랑 동지팔죽 나눔'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발굴 홍보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팔죽 나눔 행사는 관내 기부식품이 제공되지 못해 소외될 수 있는 저소득층 이웃에게 동지를 맞아 나눔을 실천하고자 마련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국산 팔을 이용해 정성스럽게 조리한 팔죽을 비롯해 보은 책임질 담요 등을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 60가구에 직접 전달하며 인부를 살폈다.

또한, 팔죽 나눔 행사 후에는 양주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거리홍보 캠페인을 펼치며 관내 주민들에게 어려운 이웃 발굴과 관심을 독려했다.

박도영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건강히 보낼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동참해준 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없는 모두가 행복한 양주2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김영근 기자

오산, (주)드림컴퍼니 이웃물품 전달

경기 오산시 대원동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주)드림컴퍼니와 이웃돕기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주)드림컴퍼니 직원들은 '산타가 된 마음으로 따뜻한 이웃사랑을 보여주고 싶다'며 함께 산타 모자를 쓰고 이웃돕기 물품을 대원동에 전달했다.

김상수 (주)드림컴퍼니 대표는 "매년 직원들과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도울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며 "이를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에 모두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문배 대원동장은 "(주)드림컴퍼니 직원들이 뜻깊은 기부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드림컴퍼니는 대원동 관내 기업으로 매년 소외계층을 위해 꾸준한 기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오산/이승배 기자

평택장례문화원, 쌀 50포 기탁

경기 평택시 평택장례문화원은 최근 평택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위해 올해 50포 백미 50포를 기탁하며 선정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평택장례문화원은 최근 평택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위해 올해 50포 백미 50포를 기탁하며 선정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평택시 평택시 평택장례문화원은 최근 평택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위해 올해 50포 백미 50포를 기탁하며 선정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평택/이동원 기자

광명시, 어르신에 겨울이불 전달

경기 광명시 광명6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관내 장애인 및 저소득 어르신 13가구에 겨울이불세트를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

된 12월 경제적인 부담으로 충분한 난방을 하지 못하는 취약 독거노인 13가구에 겨울 이불을 지원해 한파로 인한 건강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광명6동 단체원 및 주민들의 CMS 후원금으로 마련한 이불이라 더욱 의미 있는 선물이었다.

전달식에 참석한 고길수 위원장은 "독거노인의 경우 겨울철이 더 어렵고 힘든 시기인 만큼 이웃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종식 광명6동장은 "추운 겨울철 홀로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후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김미경 기자



여수시, 연말 후원 줄이어...이웃 사랑 '훈훈'



김장김치 나눔, 중고생 장학금 지급 백미 전달, 낭만포차 수익금 기탁 등

전남 여수시는 연말을 맞아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등에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동문동 자생단체 위원과 부녀회원 등 50여 명은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고 직

접 담은 김치 500포기를 소외계층 250세대에 전달했다.

월호동과 만덕동, 묘도동에서도 김장김치 나눔 행사가 열렸다.

지난 18일 월호동 새마을부녀회와 ㈜한화사업단 직원 등 50여 명은 김치 600kg을 담아 취약계층 80세대에 후원했다.

지난 18일과 19일 만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묘도동 주민자치위원회도 각각 갖김치 200통과 김장김치 180포기를 경로당과 다문화가족세대 등에 지원했다.

돌산읍사무소는 지난 18일 돌산읍 자생단체와 돌산골프동호회, 골드주유소 등의 후원으로 중고생 17명에게 장학금 63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여수관광발전협의회는 만홍동 취약세대에 연탄 1200장과 이불세트, 생필품을 전달했고, 둔덕

동 기부천사 김용호 씨도 동 주민센터에 선물세트 10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

울촌면사무소는 쌍봉종합사회복지관과 금호폴리켄의 후원으로 저소득 및 독거 어르신 75명에게 서커스 관람 등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했고, 현대스틸산업(주) 울촌공장은 후원금 558만 원을 울촌면에 기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 여수지사는 한려동 주민센터에 백미 30포를 전달했고, 낭만포차(회를 품은 것)를 운영하는 김익재 사장은 하루 수익금 전액을 월호동 주민센터에 기탁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온정을 베풀어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시에서도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살피고 돌보겠다"고 말했다.

여수/이남출 기자

봉화군, 101세 어르신에 장수축하금 전달



춘양면 춘매회, 무병장수 기원 불우이웃 및 소외계층에 관심

경북 봉화군 춘양면 춘매회는 최근 연말을 맞아 춘양면 최고령 서금선(101세) 어르신을 찾아뵙고,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김한진 춘매회장은 "지역의 제일 큰 어르신의 장수를 공경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장수축하금을 전달하게 되었으며, 지역의 모든 노인들의 건강과 무병장수를 기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금선 어르신은 "100세 넘는 노인을 찾아와주니 고맙다"며 즐

거워하시는 모습을 보였다. 서금선 어르신의 아들은 "규칙적이고 편식하지 않는 식생활과 아침마다 텃밭을 가꾸는 일이 장수의 비결인 듯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춘양면 출신의 선후배들로 이루어진 춘매회는 불우이웃 및 소외계층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으며, 올해도 지역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 유강근 춘양면장은 "이런 자리를 마련한 춘매회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지역사회에 경로효친사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봉화/정승초 기자

이천시 '행복한 동행'에 도움 손길 이어져

이담치과에서 세탁기 18대 기탁 코오롱스포렉스도 500만원 쾌척

기해년 2019년을 보내면서 최근 경기 이천시에는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려는 행복한 동행 성금·품이 담겼다.

먼저 중리동 소재의 이담치과에서 세탁기 18대를 기탁했다.

이담치과는 "금년 세탁기 후원으로 저소득가구의 요청을 들어 드릴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병원으로 사회적 가치실현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세탁기 후원으로 저소득가구가 좀 더 쾌적하고 건강하며 일상생활 불편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년간 1인1나눔계좌갖기 사업에 매월 500계좌를 참여하고 있는

㈜이천냉장로지스도 200만 원을 기탁했으며 매월 정기기탁 성금은 행복한 동행에 특색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주) 스포렉스에서 500만 원을 기탁해 왔으며 코오롱스포렉스 이천점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이웃돕기 성금 기탁뿐만 아니라, '행복한 동행' 재능나눔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으로 이천시 관내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수영강습을 진행해 오며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임태준 이천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잊지 않고 함께 나누려는 온정이 한파에도 이천시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천/남시현 기자

고양시 '사랑나눔 보듬박스' 전달

경기 고양시 흥도동 소재 더 보듬교회와 최근 생활용품이 담긴 희망박스 20개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서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해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연말을 맞아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기욱 담임목사는 "개척교회이지만 크리스마스를 맞아 교회 성도와 작은 정성을 모았다. 이번 나눔이 추운 겨울을 힘겹게 보내는 이웃에게 온기가 되어 전달되길 바란다. 교회는 별도로 정서 코칭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위한 무료 상담도 진행한다"고 전했다.

김덕수 흥도동장은 "어려운 분들이 출지만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했던 사랑나눔 보듬박스가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의 따뜻한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김성태 기자

양주시, 온정의 손길로 훈훈한 연말 보내

무량사, 백미 10kg 50포 기부 흥원기 고문도 200만 원 기탁

연일 이어지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경기 양주시에 각계각층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며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지난 22일 백석읍 오산리에 소재한 무량사는 우리민족의 대표 절기인 '동지'를 맞아 백미 10kg 50포를 백석읍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또,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이웃들에게 나내고 있는 흥원기 대한언론인회 고문은 지난 20일 백석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2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같은 날 양주농협 농가주부모임과 양주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양주2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각각 50만 원과 100만 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양주/김영근 기자

착한가격업소 경주시지회의 따뜻한 나눔

연말 소외된 이웃에게 위로금과 위문품 전달로 따뜻한 온정 나눠

착한가격업소연합회 경북 경주시지회에서는 26일 연말을 맞아 자칫 소외되기 쉬운 소년·소녀가장에게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작으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위로금과 소정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한, 평소에도 결손가정 지원 및 불우이웃돕기 및 고령자 할인, 어르신 식사대접 등 업소마다 자체적인 봉사를 해 오고 있던 터라 이번 나눔은 더 뜻깊다고 할 수 있다.

경주/정승초 기자

용인시, KCC서 저소득 이웃에 난방용품 전달

이불 308개, 전기매트 100개, 텐트 등 차상위 계층위해 4,000만 원 물품 전달

경기 용인시는 지난1월 KCC가 기부한 성금으로 마련한 이불·전기매트 등 난방용품을 저소득 가정 500가구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한 물품은 이불 308개, 전기매트 100개, 난방텐트 259개 등 4,000만 원 상당의 난방용품이다.

시는 지난 1월 KCC가 2018년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운동에 기부한 성금 3억 원 중 일부로 이 성품을 구입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 이 물품을 전달했다.

용인/남시현 기자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발행·편집인: 최수진 / 부사장: 김영근 / 편집국장: 정재두

서울본사: (우 08639)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시흥동) 시흥유통상가 12동 106호

경기본사: (우 14220) 경기 광명시 오리로 970 크로앙스 (광명동) 2층 201호

대표전화: 1899-9659 2009년 4월 20일 창간

편집국: 02-2612-2959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경기, 가50079

이메일: ekwk44@naver.com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sujin004344@hanmail.net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좋은사람들의
평화도시

Hi 연천

DMZ 청정 연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남토복수
연천군수인증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연천군수가 인증**

명품 브랜드로서
품질의 우수성 보증

북쪽의 깨끗한 물과 남쪽의 비옥한 토지에서 정성들여 생산된
청정지역 우수 농/특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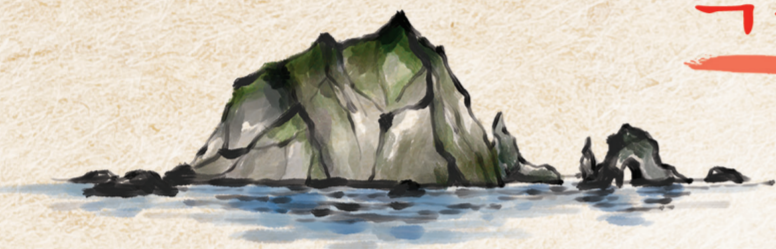
연천군

독도, 일본주장 왜 허위인가? II

“독도, 일제강점과 관계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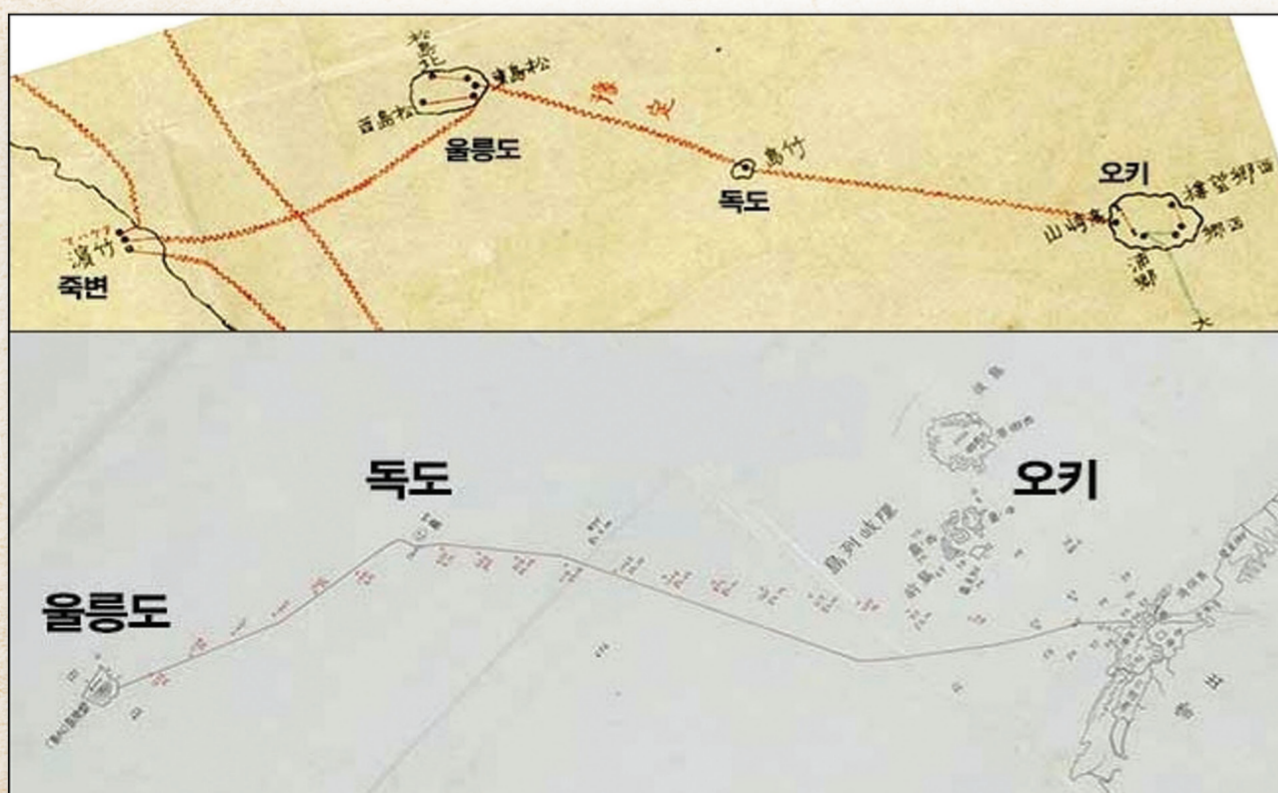
독도가 일본 침략

첫 희생물이 된 경위는 이렇다



독도 가설 망루건설물 배치도

※망루는 현 독도경비대 막사, 감시소는 현 독도 등대자리



해저전선 부설도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러시아 함대가 동해로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기로 한다. 일본 해군은 1904년 9월, 1905년 1월과 6월 등 수차례에 걸쳐 군함을 보내 독도에 대한 조사를 하고 러시아 군함이 독도 부근에 표박해 있는 것을 확인한다.

이에 일본 해군은 7월 25일에 망루 공사를 시작해 8월 19일부터 망루를 가동했다. 당시 일본은 울릉도-독도-오기(隱岐)를 잇는 해저 통신케이블 부설공사를 추진했으며, 독도에는 관측병 등 4명의 군인이 체류했다. 시마네현은 망루 설치 과정에서 강치잡이업자 나카이 요사부로를 앞세워 독도를 무단 편입했다. 망루요원은 러일전쟁 종전 후 10월 24일 철수했으며, 해저케이블은 1945년 패전할 때까지 운용되었다.

일본은 1904년 2월 23일 이미 강압적으로 체결한 한일의정서에서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기(隨機) 수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